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3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상호문화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일시: 2023년 2월 24일(금) 10:00-18:40

진행: 오프라인(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6층대회의실)

+ 온라인 웨비나(ZOOM) 동시 진행

<https://inha-ac-kr.zoom.us/j/6603049049>



주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BK21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일반공동연구팀)

공동주관: 강원대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교육연구단,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후원: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연구재단

- 주제: 상호문화도시와 세계시민교육
- 일시: 2023년 2월 24일(금) 10:00 - 18:40
- 진행: 오프라인(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6층대회의실) + 온라인 웨비나(ZOOM) 동시 진행
<https://inha-ac-kr.zoom.us/j/6603049049>
- 주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BK21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일반공동연구팀)
- 공동주관: 강원대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교육연구단,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 후원: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전체진행: 오정미(학회 총무이사)

09:30~10:00 등록

10:00~11:40 개회식

사회: 손영화(인하대 법전원 교수)

10:00~10:10 인사말
김선정(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장)
도성훈(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유강하(강원대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교육연구단장)

기조강연

10:10~10:50 기조강연1 이주의 세계화와 한국 이민정책 3대 전략
김도균(제주한라대 특임교수)

10:50~11:30 기조강연2 일상과 직업사이에서의 상호문화실천: 행위이론적 접근
이병준(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11:30~12:50 점심 식사(본관 교직원 식당 별관)

12:50~14:00 세션 1. 글로벌학교와 세계시민교육

사회: 윤영(호남대 한국어학과 교수)

12:50~13:20 주제발표1 국제학교 현황 및 전망
이경화(송실대 평생교육학과 명예교수)

13:20~13:50 주제발표2 역량을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담아내는 방법
: 개념 학습에 관한 IB의 접근
조현영(인하대 교육학과 교수)

13:50~14:00 질의 및 토론



14:00~15:10 세션 2. 재외동포청 설립과 문화교류 사회: 김남용(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14:00~14:30 주제발표3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분석과 전망
정상우(인하대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14:30~15:00 주제발표4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와 차세대 육성
김봉섭(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15:00~15:10 질의 및 토론

15:10~16:00 세션 3. 학교와 세계시민교육 사례연구 사회: 박종도(인천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5:10~15:30 사례발표1 글로벌 시대의 학교시민교육 정책과 실제
김요섭(인천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15:30~15:50 사례발표2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연구
배기택(인천논곡초등학교 교사)

15:50~16:00 질의 및 토론

16:00~17:40 세션 4. 학문후속세대 발표 사회: 권요섭(인하대 BK교육연구단 연구교수)

16:00~17:00 포스터발표 인하대·강원대 석박사과정생

17:00~17:10 질의 및 토론

17:10~17:40 기조강연3 다문화 사회와 세계시민으로의 삶
김영순(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17:40~18:30 정기총회 진행: 오영섭(학회 총무이사)

17:40~18:00 연구윤리교육
박수정(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부소장)

18:00~18:30 총회(차기회장 선출 및 감사보고)

18:30~18:40 폐회사 및 폐회



안녕하십니까?

2023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인하대학교다문화융합연구소의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봄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인하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All Ways Incheon)’를 도시브랜드(BI)로 내세울 만큼,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세계로 길을 잇는 관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는 다문화배경 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천이야말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가능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서 제시되는 변화되고 있는 교육환경과 이에 대처하는 실천적인 대안들이 널리 확장되고 한국 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상호문화도시와 세계시민교육’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당면한 현실과 과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담론이 되고, 실천의 물결이 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창출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학술대회를 위해서 옥고를 준비하시어 귀한 발표를 해 주시는 선생님들, 바쁘신 중에도 사회를 맡아 주시는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를 주관하시고 협력해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및 BK21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김영순 소장·단장님,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교육연구단 유강하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학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장 준비부터 등록, 안내 등 모든 일을 맡아 수고해주신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학생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세계시민교육을 한국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소통과 학문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장 김 선 정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인하대, 강원대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 국제교육원의 공동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상호문화도시와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인천은 세계를 향한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다양성, 개방성, 포용성으로 성장하는 희망과 설렘의 도시입니다.

다문화가구 3만 명, 다문화학생 1만 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인천은 이미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열풍을 이끄는 K-콘텐츠에서 보듯 이제는 국경, 인종, 언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주 배경의 차이가 배움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다문화 정책학교를 통해 상호문화다양성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어교육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교육을 넘어 이중언어의 강점을 살리는 동아시아국제학교의 설립도 늦추지 않겠습니다.

2023년 인천교육은 사제동행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인천교육의 학생성공시대를 위해 여러분의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행사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봄이여, 빨리 오라”는 천상병 시인의 시어가 더없이 벅차게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입춘(立春)과 우수(雨水)를 지나 봄으로 성큼 걸어들어온 2월 말에,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깊고 넓게 연구해왔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많은 주제들과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학술적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상호문화도시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학교와 세계 시민교육’, ‘재외동포청 설립과 문화교류’, ‘학교와 세계시민교육 사례연구’ 세션에서 모두 4편의 주제 발표, 2편의 사례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 계신 교육자,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학문후속세대의 발표까지 포함되어 있어, 봄꽃처럼 다채로운 목소리가 어울리는 학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작가 존 쿿시(200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엘리자베스 코스텔로』에서 학회란 “생각이 교환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뚜렷했을 때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오늘의 자리도 다양하고 뚜렷한 생각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교환되는 학술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마련해주신 인하대 다문화교육학과 김영순 단장님께 감사드리고, 학술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실무자 선생님들, 발표, 토론, 진행의 역할을 맡아 수고해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2월 24일
강원대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
유 강 하



개회	인사말	
	김선정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유강하 강원대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교육연구단장	
기초 강연	기초 01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이주의 세계화와 한국의 이민정책 3대 전략	3
	기초 02 이병준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일상과 직업사이에서의 상호문화실천: 행위이론적 접근	9
	기초 03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다문화 사회와 세계시민으로의 삶	17
	세션 1. 글로벌학교와 세계시민교육	
주제 발표	주제 01 이경화 송실대 평생교육학과 명예교수 국제학교 현황 및 전망	35
	주제 02 조현영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 역량을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담아내는 방법 : 개념 학습에 관한 IB의 접근	51
	세션 2. 재외동포청 설립과 문화교류	
	주제 03 정상우 인하대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분석과 전망	69
주제 04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와 차세대 육성	89	
사례 발표	세션 3. 학교와 세계시민교육 사례연구	
	사례 01 김요섭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글로벌 시대의 학교시민교육 정책과 실제	105
	사례 02 배기택 인천논곡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연구	115
포스터 발표	세션 4. 학문후속세대 발표 [포스터세션]	
	포스터 인하대·강원대 석박사과정생	129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3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상호문화도시와 세계시민교육

기조강연

01

이주의 세계화와 한국 이민정책 3대 전략

김도균 |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02

일상과 직업사이에서의 상호문화실천
: 행위이론적 접근

이병준 |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03

다문화 사회와 세계시민으로의 삶

김영순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이주의 세계화와 한국 이민정책 3대 전략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 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0-1

검토배경

-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뚜렷한 특징이 있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정부의 대안정책 부재로 이민자 수용과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존
- 지정학적, 인류학적 배경과 인구이동의 경로를 보면, 한반도는 개방과 통(通)의 시대에 강했고 쇠국과 봉(封)의 시대에 쇠락의 길로 진입
- 이민 선진국은 총량적 국부 증대를 위해 인재유치 전쟁을 펼치고 있으며, 부족한 인구를 보완할 수 있는 필요인재 유치와 이민자와 공존하는 사회통합은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부민강국(富民強國)의 필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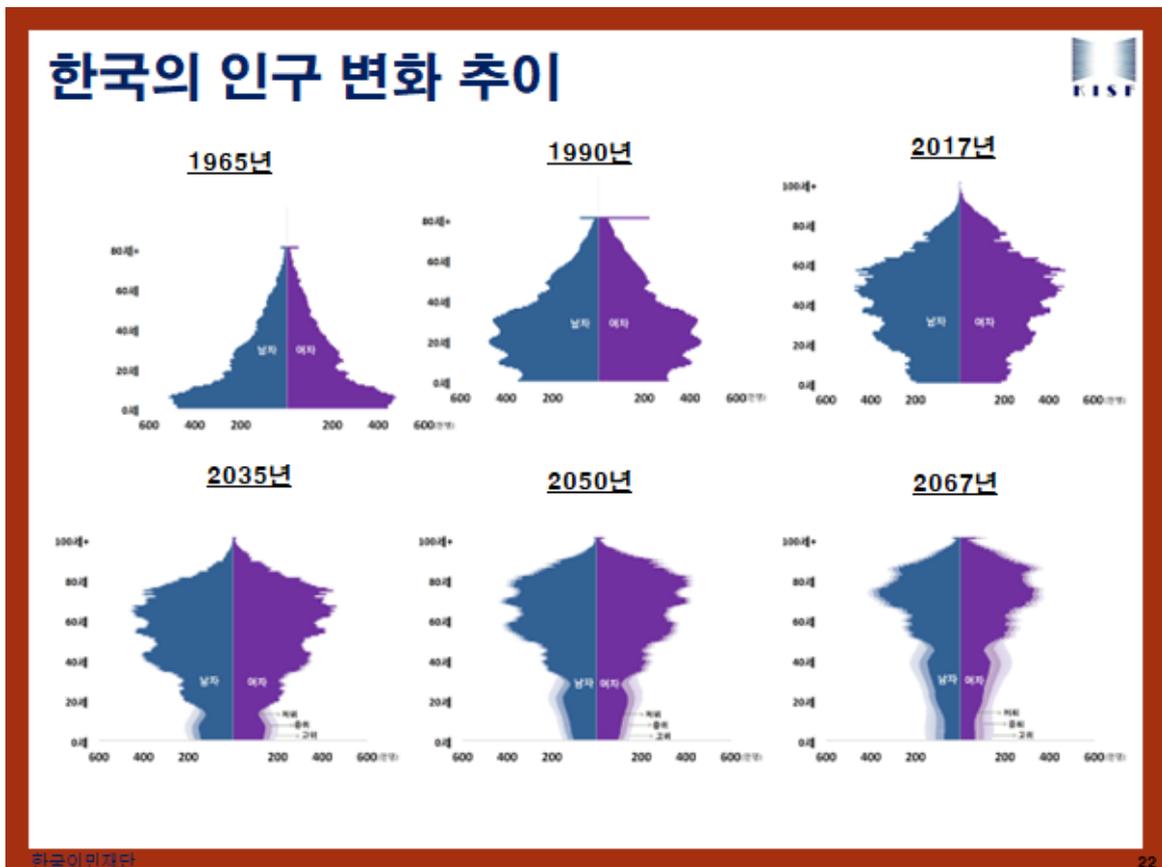
0-2

문제점

- 인구절벽과 초고령화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음에도, 이민수용과 이민정책에 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별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초래 등 정책실패 현상 지속
-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코로나로 인력 부족은 심각함에도 부처별 분산된 법률

과 추진체계로 외국인과 동포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대책 부재

- AI, IT, BT, 반도체 등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제조업, 어업, 농림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발생
-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활용하는 육성형 이민정책과 초고령화 시대 필수인력인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활용대책 미비



전략1

한국형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립

1.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등 이민정책 분산 시행으로 돌발적이고 다변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 동일대상에

비효율적 중복 정책과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역차별 논란 발생

- 외국인과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성과 사업은 조직 이기주의로 협업이 곤란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통합논의도 실패로 결론이 났으며, 코로나-19시기에 더욱 심해진 외국인 차별과 혐오 정서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정책은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

1.2 해결 방안

- **(이민정책 비서관)** 인구문제와 이민정책에 관한 기획과 조정능력을 확보하고, 이민정책 전문 지식, 정책분석, 위기대응 능력 등을 겸비한 대통령 직속 비서관 신설
- **(이민정책 전담조직)** 대상자별 이민정책을 추진부서 분산으로 부처 간 협업 부족과 책임 소재 불분명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이민수용 등 장기 대책 수립이 곤란한 상황에, 전담조직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을 수립·집행·평가·환류·감독 필요
 - * 중국(2018년), 일본(2019년)도 이미 전담조직 설치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도 부, 처, 청 단위 전담조직이 모두 가능하나, 재외동포청 설치 공약 등 우리 정부조직의 특징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의 처 단위 전담조직을 제안
 - **부(部)** : ‘인구이민부’, ‘사회통합부’ 등의 명칭 가능하고, 국무위원인 장관이 직접 이민정책을 통할하여 중장기 인구문제 및 이민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동포) 관련 업무를 신설 부로 이관하여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일원화 가능
 - **처(處)** : 총리실 직속으로 ‘이민동포처’, ‘이민처’ 등의 명칭이 가능하고, 부처별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하여 이민자 대상별 종합정책추진으로 부처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윤석열 행정부의 작은 정부 설계에 맞춰 중앙과 지방조직의 분권화와 부와 청의 절충형으로 타 부처 등의 수월

- 청(廳) : ‘이민·동포청’, ‘출입국·이민청’ 등의 명칭이 가능하며, 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단순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집행력 보강할 수도 있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속 또는 신설부서에 전체 업무를 이관하여 미래 전략 조직으로 육성한 후 처나 부 단위로 확대 가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전달체계) 이민정책 집행 기관으로 총1,045개가 부처별·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전달체계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으로 기관 간 사업경쟁을 해소하고 지방 분권화 절충형 통합지원센터(원스톱 서비스) 통합 요구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52개
 - * 법무부 사회통합·조기적응프로그램(동포지원센터 포함) 기관 : 647개
 - * 광역 시도(16개), 시군구(256개) 등 외국인복지센터 : 56개
 - *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28개
 - *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44개
 - * 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센터 : 18개

전략2 사회통합기금 설치

2.1 필요성

- 다문화가족 지원에 예산집중으로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지원 비난 정서가 비등하고 있으며, 이민자 관련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이 어렵고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현상 발생
 - * 국경관리, 체류관리 등 다양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탄력적 예산 운용 필요
 - * 코로나-19, 난민사태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예산 확보 필요
-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 잠식한다는 편견과 불필요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 비취업업종 종사 국민에 대한 재취업교육 지원 재원 필요

2.2 설치방법

- (근거)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6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운영
- (재원확보 방법) 외국인등록 시 부담금, 귀화·국적회복 등 수수료,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등 외국인 체류 관리 수수료, 과태료, 출입국사범의 범칙금 등
- * 재원조달 : 「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제100조(과태료), 제102조(통고 처분) 등으로 가능

외국인납부 수수료,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현황

(단위:억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입 규모	713.5	850.6	837	639.5	634	1,015	1,045	1,099	1,153	1,325	1,173	1,109

- (기금설치를 위한 법 개정)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기금설치·운영계획 수립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으로 기금설치 가능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이 국회 계류 중

전략3 사회통합정책 활성화

3.1 사회통합 정책 고려사항

- 사회통합은 이민자 입국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이민의 대상지, 이민의 규모, 이민의 질이라는 3대 요소를 반영한 정밀한 정책 요구

-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기 입국하여 체류 중인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하고 무계획적인 도입 지양
- 국민과 이민자 간 서로 보완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분석과 평가체계가 필요하며, 정확한 실증자료를 통한 노동시장 효과분석을 통해 고용정책에 반영하도록 가상조직과 전문직업인제도 도입 필요

3.2 체류 외국인 대상별 맞춤 전략

- **(재외동포)** 외교부와 법무부가 분리·관리하는 동포 정책의 일원화는 필요하나 국내 체류 동포를 외교부가 직접 관장할 경우 외교분쟁 등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 전략할 우려가 다분하므로, 이민정책 전담조직 내 동포전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을 통합하여 이민·동포처(청) 신설이 타당
- **(외국인 근로자)**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관리체계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취업허가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초청과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진입을 확대하고, 농어촌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농어업 이민제도 도입
-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가 지역 인구 보완 및 육성형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정책을 위한 공동육아 시스템 강화하고, 경력관리를 위한 직업교육 및 탄력근무 등 근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여성가족부의 부가적인 업무인 다문화가족 정책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
- **(외국인 유학생)** 우수 인재이자 지방대학과 지역경제의 필수 인재임을 감안, 지역 특화형 노동시장을 고려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자에 따라 차등화된 체류비자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취업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영주자격으로 가는 패스트트랙 제공

일상과 직업사이에서의 상호문화실천 : 행위이론적 접근

이병준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2023 인하대학교 학술대회 기초강연

일상과 직업 사이에서의 상호문화 실천 : 행위이론적 접근

2023.02.24

이 병 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yibyungjun@pusan.ac.kr

이론적 배경 (I) D. Benner (1987)

- **직업** : 근대성; 기능적 분화로 생겨난 일
- **실천** : 인간의 실존을 위한 행위

이론적 배경 (II) J. Habermas (1981)

- 생활세계 (life world; everyday life) :

제도의 틀과 관계없는 실천적 행위

- 체계 (System) :

법적, 제도화된 틀 속에서의 직업적 행위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이론적 배경 (III) 이병준(2023)

상호문화실천

=

상호문화성(상호문화적 가치)을 지향하는

모든 형태의 일상적·직업적 실천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상호문화성 (상호문화적 가치지향)

존중 (respect)

갈등관리 (conflict management)

의사소통 (communication)

성찰 (reflection)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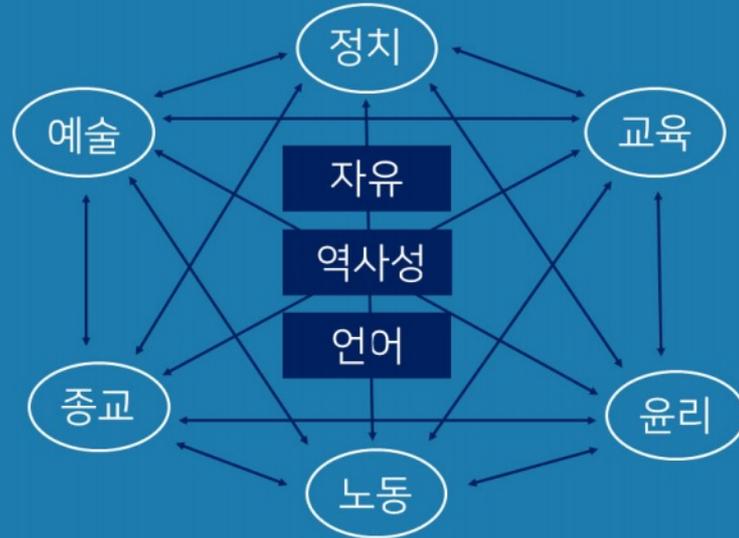
상호문화실천의 장

상호문화실천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노동적, 교육적, 예술적 실천영역을 가로

지르는 차원에서 실행(perform)이 이루어짐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그림 1] 인간행위실천의 관계 (Benner 1987에서 재인용, 이병준, 1998)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상호문화연행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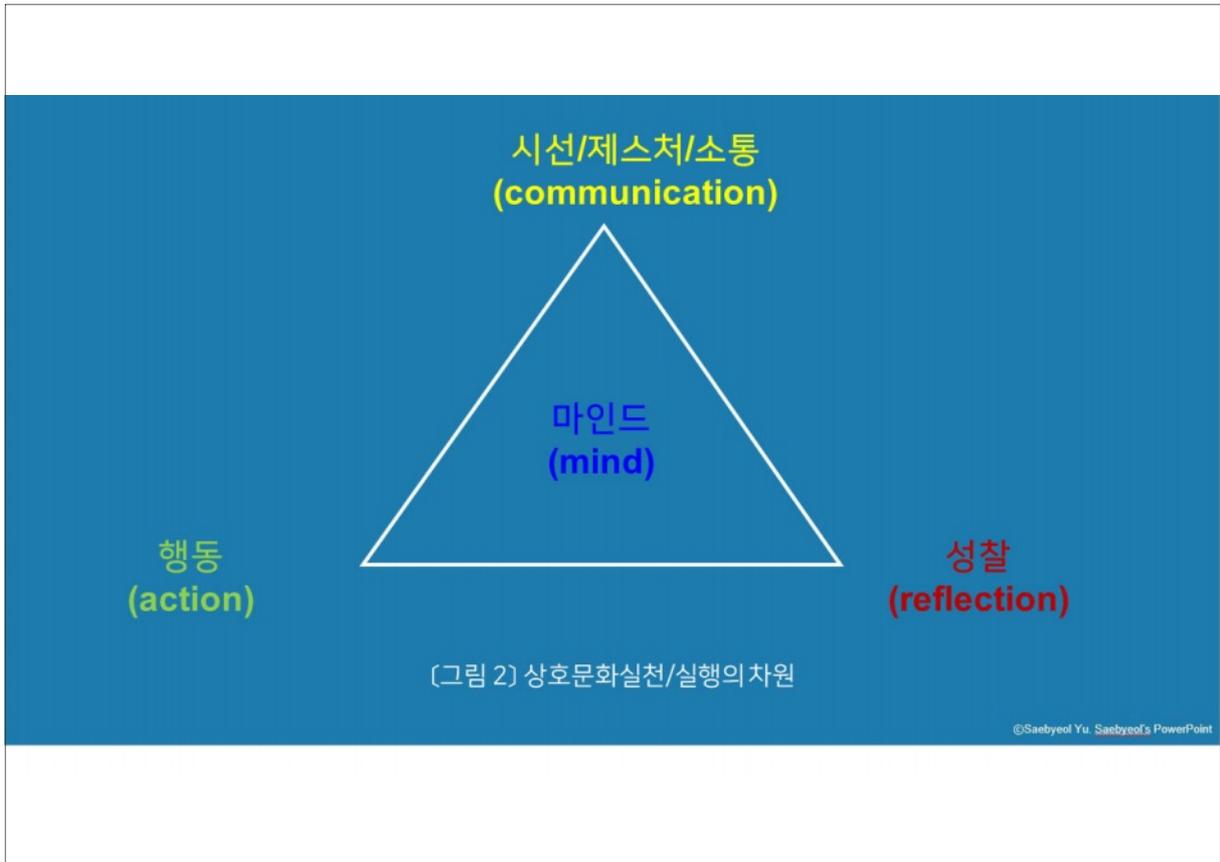
Praxis(실천)

Performativity(연행성)

=

시선, 제스처, 언어, 사고, 표현, 신체적 행동, 행위 etc.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상호문화실천의 영역 - 상호문화도시

공간

리듬

분위기

로컬리티

문화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상호문화실천의 영역 - 상호문화 휴먼서비스

행정
복지
보건의료
교육 ..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상호문화실천의 영역 - 상호문화 일상행위

시선
제스처
언어
행동
마인드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맺음말

- 담론 : 행위이론적; 학제적 접근
- 실천 / 정책: 협력적 융합적 접근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감사합니다!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다문화 사회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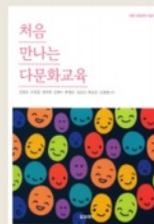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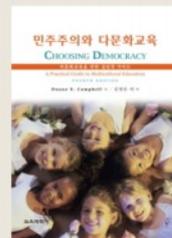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다문화사회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삶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김영순 교수
www.cim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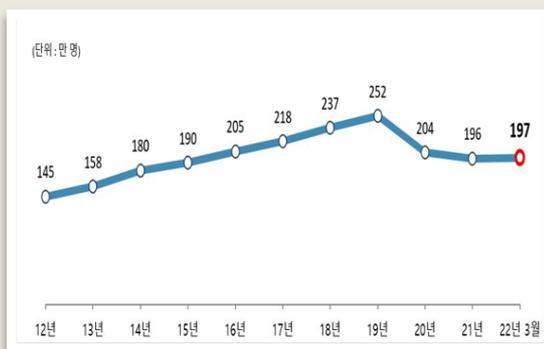
강연 참고 서적



목차

-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현상
- 시민과 시민교육
- 세계시민의 의미
-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
- 세계시민의 삶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현상(1)



▶ 체류외국인 증감추세(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 2022.3)

- ›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 유입
- › 2007년 3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급격한 증가
- › 2019년 12월 25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코로나19로 체류외국인 감소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현상(2)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20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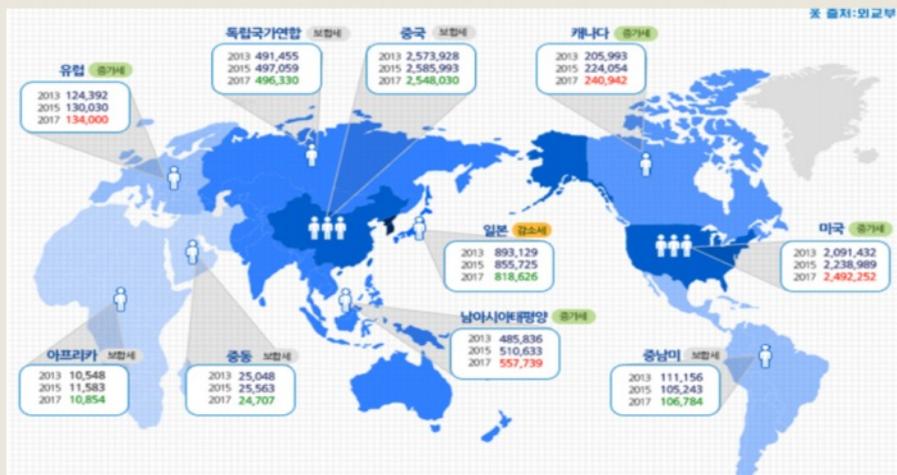
국적별	계	중 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네 팔	기타
인 원	1,089,794	418,356	175,189	42,695	40,487	37,930	35,749	339,388
비 율	100%	38.4%	16.1%	3.9%	3.7%	3.5%	3.3%	31.1%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2022.03)

계	문화예술 (D-1)	유 학 (D-2)	일반연수 (D-4)	종 교 (D-6)	상사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교 수 (E-1)
1,089,794	47	113,817	47,791	1,323	960	6,054	1,969	2,048
	회화지도 (E-2)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총행 (E-6)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13,164	3,659	173	246	3,154	21,108	279	214,348
	선원취업 (E-10)	방문동거 (F-1)	거 주 (F-2)	동 반 (F-3)	영 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기 타
	17,835	88,916	42,633	20,948	170,256	133,093	115,946	70,027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22. 03.]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현상(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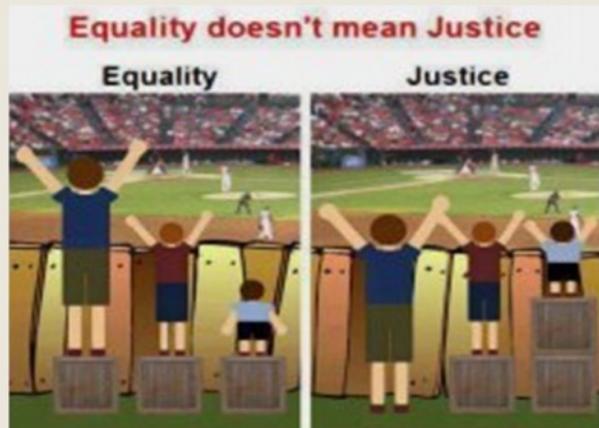
글로벌 사회, 초국적 이주 시대
에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
일까?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떨까?

평등의 의미와 가치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은
다르다.



시민과 시민교육(1)



- 시민: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
- 신민 또는 국민과 비교: 시민의 특징이 조금 더 명료해짐.
- '신민(subject)': 절대군주 체제 하에서 군주의 지배를 받는 신하로 권리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주로 일방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함
- 반면 시민은 권리와 의무가 둘 다 있고, 이들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함.
- 신민과 시민의 차이: 권리-의무 관계를 통해 뚜렷하게 구분됨
- 권리의 주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띠는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일상적으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주주의 이념형성적인 차원에서는 국민과 시민을 구분해야 함

시민과 시민교육(2)



- 범주 측면에서 국민(nation)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시민은 국가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시민'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조합하여 시민 단체, 세계 시민 등과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시민의 범주가 다양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임
- 자기 주도성(혹은 행위자성)의 측면의 국민과 시민의 차이: 국민과 시민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사람임
- 시민은 국민에 비해 기존에 행사되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타당한지, 권리와 의무의 행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남
- 이처럼 시민은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음

시민과 시민교육(3)



- 자기 주도성(혹은 행위자성)의 측면의 국민과 시민의 차이: 국민과 시민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사람임
- 시민은 국민에 비해 기존에 행사되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타당한지, 권리와 의무의 행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남
- 이처럼 시민은 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즉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시민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 참여, 인권, 다양성 존중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관심을 두고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질을 지녀야 한다고 봄

시민과 시민교육(4)



- Kerr(1999)는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소주의적 접근과 최대주의적 접근으로 설명하였음.
-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시민(공민)교육은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반영하면서 역사지리적 사실, 정부 구성 체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지식과 내용 중심의 전형적인 수업 형태로 이루어짐.
- 이러한 방식에서는 교사 중심의 교훈적 내용 전달과 교사의 질문과 답변 형태의 수업이 많이 나타남
- 반면, 최대주의적 관점에서의 시민교육은 모든 사회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접근을 취하면서, 공식적 교육은 물론 비공식적 교육도 중요하게 여김
- 지식, 이해 측면의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며, 토의 토론, 프로젝트 학습, 참여 경험 등을 강조함.
-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역시 교실 안으로만 한정하지 않으며 교실 밖 사회 활동도 중시함.

시민과 시민교육(5)

- 시민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고려할 때 시민교육은 최대주의를 지향하면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주의적 접근	최대주의적 접근
배타적(특권층)	포용적
공민교육	시민교육
전형적인(공식적인)	참여적인
내용 중심	과정 중심
지식 중심	가치 중심
교훈적 전수	상호적 이해
측정하기 쉬움	측정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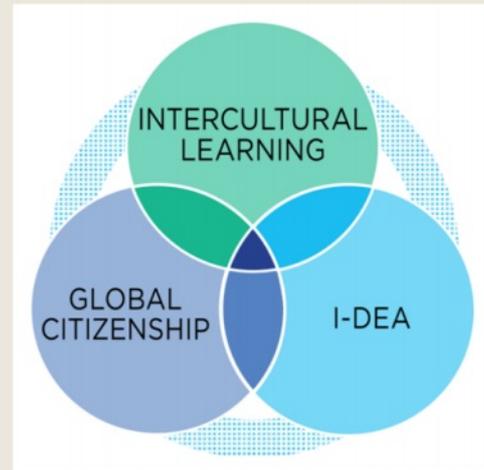
세계시민의 의미(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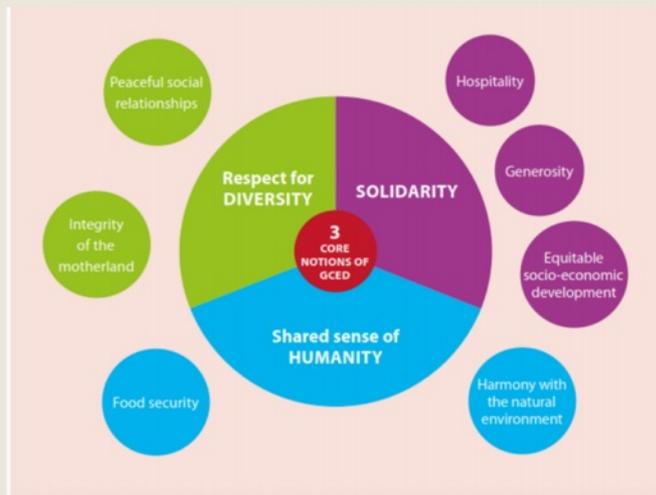
세계시민의 의미(2)

세계시민교육의 구상



세계시민의 의미(3)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개념



세계시민의 의미(4)

- 세계화의 확산에 따른 자유무역, 이주와 난민, 기후변화와 환경, 갈등과 분쟁, 실시간 온라인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현상이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음
- 세계 거의 모든 장소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돼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 지구적으로 구축되었음
- 이러한 다원성, 복잡성, 상호의존성 증대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 국가의 힘만으로는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음.
-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에 대응하고 현재와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특정 국가의 국민을 넘어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함

세계시민의 의미(5)

-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와 같이 일시적인 대응이나 국가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방식의 접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에 인식과 초국가적 성찰 및 참여가 강조되어야 함
- 환경, 인권, 평화, 구제, 전쟁 등과 같은 쟁점을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입장으로만 바라본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 이에 대해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현상의 양상과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함. 이와 같은 시민성이 곧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음

세계시민의 의미(6)

■ 세계시민성의 특징 세 가지:

- 첫째, 세계시민성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부터 지역 간, 국가 간, 세계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중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 역동적으로 작동함.
- 둘째, 세계시민성은 국민에게 주어지는 명확한 권리와 의무보다는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의식과 행동을 강조함
- 셋째, 세계시민성은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 세계를 조망할 줄 아는 정체성으로, 개인, 지역, 국가, 종교 등의 개인적, 집단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함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1)

- 유네스코에서는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설명하고 있음(UNESCO, 2015: 15).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지역사회·국가·범지역·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 습득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 함양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2)

- 세계시민교육에서는 지역·국가·세계적 이슈를 두루 다루고 이들 간의 상호연계성, 상호의존성, 연대를 강조하며,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계적 이슈의 지구적 차원의 의미는 물론 그것이 지역이나 국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발견하는 것을 중시함.
- 지역이나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지구촌의 문제이기도 하며,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나 지속가능한 세계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은 개인적,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임
-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 간, 지역과 세계 간 국가와 세계 간 다양한 차원의 연대를 토대로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의 방안과 실천이 모색되어야 함
- 이렇게 길러진 세계시민의 역량을 토대로 학생들은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현재와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3)

- **UNESCO(2015)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습자의 구체적 특성:**
- 1)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 2)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 3)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습자
- 이 특성에 각각의 인간상에 대해 각각 세 가지 하위요소와 학습주제를 제시하였음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지향하는 학습자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습자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4)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학습자의 주요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국가·세계 차원의 이슈와 거버넌스 체계 및 구조를 인지 세계적 이슈와 지역적 이슈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이해 비판적 탐구와 분석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정체성과 인간관계 소속감을 기르고 유지 인권에 기반을 둔 가치와 책임을 타인과 공유 차이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직한 기능, 가치, 신념, 태도를 실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실천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와의 의지
학습 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간의 상호 연계방식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참여하고 실천하기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5)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정의와 평등 ·정체성과 다양성 ·세계화와 상호의존성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와 갈등 ·인권 ·권력과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판적 · 창의적 사고 ·공감 ·자기 인식과 성찰 ·의사소통 ·협력과 갈등 해결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 ·근거에 기반한 성찰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체성과 자기 존중감·사회 정의와 평등에 대한 헌신 ·사람과 인권에 대한 존중 ·다양성에 대한 가치 부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헌신 ·참여와 차별철폐에 대한 헌신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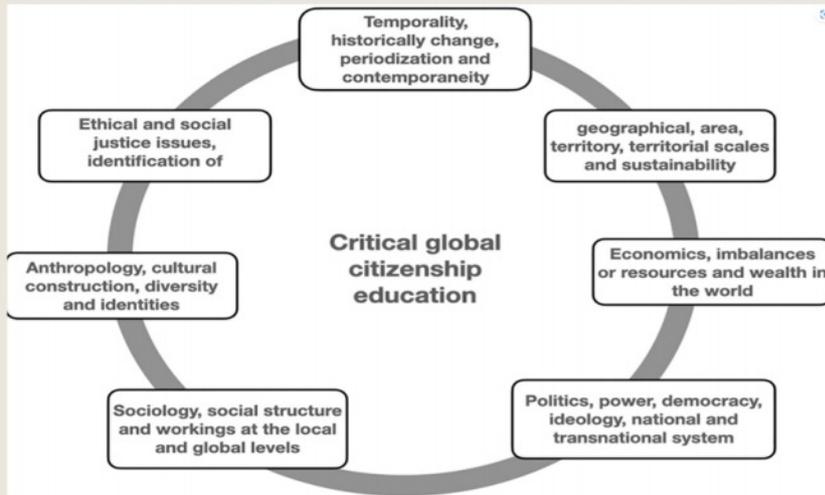
세계시민의 삶(1)

- 미래 사회에 필요한 세계시민역량
- OECD는 2018년에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성인이 되는 2030년을 목표로 하여 급변하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학습의 틀을 제시하였음
- What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 will today's students need to thrive in and shape their world?
- 'How can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 these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 effectively?
-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OECD 미래교육 2030 프로젝트(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project)를 기획하였음(OECD, 2019: 22).

세계시민의 삶(2)

환경	· 기후 변화와 자원의 고갈은 긴급한 행동과 적응을 요구하고 있음.
경제	· 전례 없는 과학기술의 혁신(특히 생명공학과 AI와 같은)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음. ·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재정적 상호의존은 글로벌 가치의 연계와 공유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경제 위기에 노출시키고 있음.
사회	· 인구 증가로 인하여 이민, 도시화,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와 공동체를 재형성하고 있음. · 불평등, 갈등, 혼란, 무기력증이 커지고 있고 전쟁과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

세계시민의 삶(3)



세계시민의 삶(4)

- OECD 2030에서는 기존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핵심역량(OECD Key Competencies)을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음.
- 기존의 ‘OECD 핵심역량’이 성공적인 삶과 잘 작동하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OECD, 2005: 4), ‘변혁적 역량’은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의 좋은 삶(well-being)을 위해 필요한 역량임(OECD, 2018: 5; 2019: 14)
-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의미함(OECD, 2019: 62).
- 변혁적 역량은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Creating new value)’,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책임감 갖기(Taking responsibility)’의 세 가지 범주의 역량으로 구성됨

세계시민의 삶(5)

-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새로운 지식, 통찰, 아이디어, 기술, 전략,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임(OECD, 2019: 63).
-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경쟁, 모순, 양립하지 않는 요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9: 63). 대부분의 문제는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되는 아이디어나 입장을 조정하거나 하나의 해결책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OECD, 2019: 63).
- 책임감 갖기: 자신의 경험과 개인적·사회적 목표, 배워온 것,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OECD, 2019: 64).

세계시민의 삶(6)

- OECD 교육 2030은 학습 나침반 강조사항
- 학생 주체성(student agency):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더 나은 사람과 사건, 상황을 위해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책임감을 의미함. 이러한 주체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면서 함양할 수 있음.
- 좋은 삶(well-being)을 위한 태도와 가치: 태도와 가치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웰빙(well-being)을 위해 한 사람의 선택, 판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나 믿음을 의미함
- OECD는 가치의 네 가지 범주로서, 1) 개인의 의미 있는 삶과 관련되는 개인적 가치(personal values), 2)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 3) 사회적 질서와 제도적 삶을 만드는 사회체제적 가치(societal values), 4) 나라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류의 웰빙에 적용되는 인간적 가치(human values)를 제시하면서, 가치가 맥락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음.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3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상호문화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세션 1

글로벌학교와 세계시민교육

주제발표 01

국제학교 현황 및 전망

이경화 | 송실대 평생교육학과 명예교수

주제발표 02

역량을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담아내는 방법

: 개념 학습에 관한 IB의 접근

조현영 |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

국제학교 현황 및 전망

이경화

송실대 평생교육학과 명예교수

국제학교 현황 및 전망
& SIA
(Sejong International Academy)

- 글로벌미래융합교육원(GFCE)
- SIA 세종국제학교 이사장

이 경 화 (송실대학교 명예교수)

국제교류교육



탐구/발견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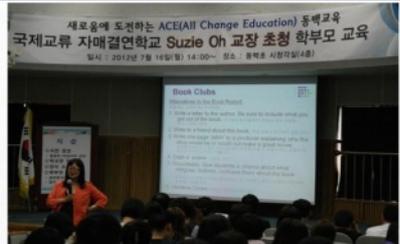
사고력/창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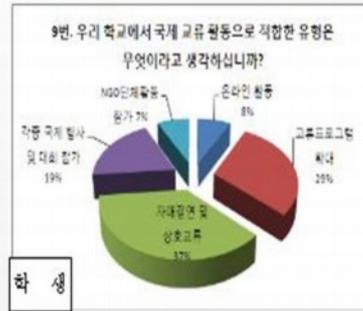
범 지구적 소양 (글로벌 시민의식)	. 우리 문화 이해	우리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태도
	. 다문화 이해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 존중하는 태도
	. 외국어 소양	국제화 사회의 상호 소통에 요구되는 외국어 문해 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 문화 감상 능력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유하는 태도
	. 국제사회 이해	국제 사회의 여러 현상 혹은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국제교류 사례



세계문화유산 통합이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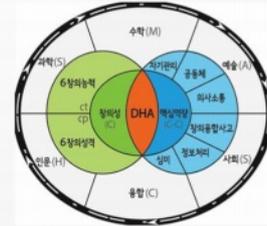


참심 초등학교, 미국 Vermont와 함께 한 국제교류학습



글로벌미래융합교육원 (GFCE) 화상수업

* Our on line video class(by SMASCH model).



승실대학교 테리엔제니 유치원



글로벌미래융합교육원 (GFCE): 하와이대학교 및 UH Lab 방문 캠프



(온라인) 국제교류교육의 효과

첫째, 학생들에게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어 **국제시민의식을 함양**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 역량인 의사소통능력, 외국어 사용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언어교육 및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적극 참여 및 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어 교육이나 국제교류를 위한 교육에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자국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써 **학생들의 국제 감각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국제학교의 동향



-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게 되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60년대~70년대의 급격한 산업발전, 경제개발과 사회 혁신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 경쟁력 우위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 이에 부응하여 국가적으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졌으며, 개인적으로도 추구하는 미래비전도 변화되었다.
- 이와 같은 사회환경에서 이제 공교육이 추구하는 평등성에서 벗어나 우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요구됨에 따라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하는 욕구를 사교육과 해외 교육에서 채우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게 되었다.



국제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 개념

-미인가 국제학교: 교육청 혹은 교육부 승인 국제학교 (채드윅, 달튼, 칼빈메니토바 등 인천내 국제학교, 제주도내 국제학교) 외에는 미인가 국제학교임

- 교육부 승인 사립학교: 청심국제중학교,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
- 이 3곳은 티엘비유나, 청심 국제고등학교처럼,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영어 특성화를 곁들여 운영하고 있음

➢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는 '국제' 라는 말은 들어가지만, 운영체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조건으로 승인함.

: 따라서 전체 영어를 사용하는 수업은 제한적이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필수 교과, 필수 이수 시수 및 단위를 준수하도록 함.

: 단, 국제 뒤에는 " 중학교" "고등학교"를 붙이는 경우는 국가주도 교육체제의 일부라는 것을 뜻함.

- 동탄 국제고의 경우는 한 해에 외국 대학 진학은 1-3명 정도. 따라서 국내형 국제문제 전문가 양성이라는 제한. 또한 공립이므로, 외국대학 진학에 별도 프로그램이나 지도인력이 미흡한 경향임

➢ 국제학교의 종류: 영어권 커리큘럼, 해외학력인증

-외국인 학교 -인가 국제학교 -비인가 국제학교

* 공통점: 영어권 커리큘럼, 해외학력인증 등

* 차이점: 입학자격조건, (국내 고교, 대학 입학관련) 검증고시 응시 여부, 교육방식 및 수업관리 등



➢ 국제학교 : 외국인 학교: 국제 중고등학교

-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부터 다름.

- 국제학교는 해외로 떠나는 유학생들을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면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
- 외국인학교는 2001년 초·중등 교육법에 설립 근거가 만들어졌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4개교가 운영 중이다.
- 지금은 해외 체류 3년 이상의 내국인 자녀와 귀화자 자녀도 다닐 수 있다.

- 외국의 학교법인이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한 캠퍼스

- 이는 '외국교육기관'으로 분류. 초·중·고 과정으로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DIS)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이들 학교는 2005년 제정한 외국교육기관법의 적용 받음.
-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의 학교법인이 '직접' 설립한 해외 분교라는 점에서 제휴를 통해 학교 이름과 교육과정을 빌려오는 제주 국제학교와는 차이 있음.
- 예, 채드윅 송도와 대구국제학교는 모두 미국에 본교가 있음.
- 현재 외국 교육과정 외에도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국어·사회 등 일부 과목을 편성해 운영 중. 내국인 학생도 외국인학교와 마찬가지로 정원의 30%까지만 선발 가능



국제고등학교는 관 주도로 국제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를 칭하며, 인가된 국제학교와는 다른 개념임
 인천의 경우는 '국내경제자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교육청에서 적극 승인해 주는 국제학교가 있음.
 한 예로, 칼빈메니토바 국제학교의 경우는 기존의 미인가국제학교로 소규모(300명정도)였는데, 2023년도에는 교육청 인가 국제학교로 학급 규모를 확대하게 되었음

1> 국내 국제 고등학교 현황 (공립)

순	학교명	설립구분	위치	개교	특색	전형방법	모집 기준
1	서울 국제고등학교	공립	서울	2007년	-AP 과정 -국내대학진학반과 외국대학진학반을 구분하여 2 트랙으로 운영함	• 1단계 영어내신 (160점) + 출결 • 2단계 1단계 성적 (160점) + 면접(40점)	[정원 내] - 일반전형 - 사회통합전형 [정원 외] - 특례입학 - 국가유공자자녀 - 외국인
2	부산 국제고등학교	공립	부산	1998년			
3	세종 국제고등학교	공립	세종	2013년			
4	인천 국제고등학교	공립	인천	2008년			
5	고양 국제고등학교	공립	경기도 고양시	2011년			
6	동탄 국제고등학교	공립	경기도 화성시	2011년			
7	대구 국제고등학교	공립	대구	2021년			
8	청심 국제고등학교	사립	경기도 가평	2006년	-AP 과정 -외국 대학 진학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높지는 않음		

15

2> 국내 국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색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목고 중 가장 유사한 외국어고등학교와 비교를 할 경우 - 외고는 (경기도의 경우), 수원외고와 성남외고를 제외한 외고는 모두 사립학교임 - 국제고등학교는 청심국제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공립학교임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고등학교는 국제통상전문 및 외교영역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기에, '인문사회계열'로 모집을 하고, 교과도 계열로 구성을 함 - (비교/ 외고의 경우는 과별 모집을 하며 전문교과 단위를 68단위 필수 이수해야 하기에,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공립 외고의 경우는 수능 대비 등 국내 일반대학 진학에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음) - 단, 사립외고는 전문교과 필수 단위 이수시 운영계획과 실적을 다르게 하여,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부들 하도록 함(학사 감사에 지적을 많이 담하기도 함) - 외고에 비하면, 국제고등학교가 현실적인 한국내 대입 진학에는 교과 이수단위 면으로나 수업면에서 도움이 많이 됨. - 단, 인문사회계열로 제한을 두었기에, 이과 계열은 진학 응시를 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최근 문이과 구분없이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되어, 이과 계열 교과 편성을 한다고 함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목표 설정에 따라 - Global high school, 또는 International high school로 영문 표기를 하며, - 그에 따라 진학지도 방향이 다르게 보여짐
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차별점 - 시설이 매우 우수함 - 정원 기숙사 2인 1실 시설 구비함 - 학급별로 20명 이내 정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인수 학급 - 교사 배치가 교사 1인당 학생 7-9명 정도임 - 수업료는 일반 인문고와 동일함: 자사고나 사립 외고의 경우와 비교하면 비슷한 교과 구성, 교육과정, 다양한 방과후수업, 동아리 확

	<p>동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료가 인문고와 비슷한 면이 혜택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이 물리적 환경에서 일반 인문고와 차별화가 확실함 - 학생선발권이 있으므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경쟁을 함 - 교육프로그램은 심화 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는 등 차별화가 확실함 - 동탄 국제고등학교의 경우는 동탄글로벌하이스쿨로서, 전교생이 태권도 1단 취득(국기원 심사)를 해야 하고, 이미 단이 있는 학생은 승단을 하도록 함
⑤	<p>-교사 근무</p> <p>-공립이므로, 교사를 초빙교사처럼 '특목고 배치적임자' 로서 요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에 교육청에 배치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학급당 교사 배치를 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고등학교는 한 학급당 교사가 2.62명 이다. * 비교 : 일반고등학교는 한 학급당 교사 1.95명, 외고는 한 학급당 2.0 명이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교사가 배치되고, 교사당 관리학생수도 적은 편이므로, 프로젝트 수업등 다양한 수업 및 진학 관리에 유리함
⑥	<p>- 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차별성은 공립 외고나 과고, 영재고와 차이가 어떨지를 추가 확인 필요함. - 영재고는 일반 고교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임 - Colleague 개념 임 - 과고, 공립 외고, 국제고등학교가 유사할 듯 함

17

학력인증기관	개소	기관명
COGNIA (16기관) 세계 최대 국제학교 인증 기관	1	Daegu Elementary School
	2	Daegu Middle/High School
	3	HPrep Academy
	4	Humphreys Central Elementary School
	5	Humphreys High School
	6	Humphreys Middle School
	7	Humphreys West Elementary School
	8	Korea International Institute
	9	Mountain Cherry Academy
	10	Osan Elementary School
	11	Osan Middle/High School
	12	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3	Seoul Scholars International Art & Design
	14	Shepherd International Education
	15	St. Paul American Scholars
	16	Valor International Scholars
WASC (29기관) (미서부교육청)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https://directory.acswasc.org/	1	Asia Pacific International School
	2	Atherton International School
	3	BC Collegiate
	4	BIS
	5	Branksome Hall, Asia
	6	Busan Foreign School
	7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8	Cheongna Dalton School
	9	Daegu International School
	10	Dulwich College Seoul
	11	Gangnam International School
	12	Global Prodigy Academy
	13	Gyeonggi Suwon International School
14	Gyeongnam International Foreign School	
15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16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Pyeongtaek	
17	International School of Busan	
18	Korea Foreign School	
19	Korea International School	
20	Korea International School - Jeju Campus	
21	Korea Kent Foreign School	
22	Kwangju Foreign School	
23	SALT International School	
24	Seoul Central International School	
25	Seoul Foreign School	
26	Seoul Global High School	
27	Seoul International School	
28	Taejo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29	Yongsan International School of Seoul	



학력인증기관	개수	기관명
	1	American STEM Zone
	2	BC Collegiate - Banzab
	3	Beyond Dream Global Leader Sch...
	4	Big Heart Christian School
	5	Big Christian Education
	6	Brian Lopez International Chri...
	7	CityHill Academy
	8	Collegiate Academy of Seoul (f...
	9	Cornerstone Collegiate Academy...
	10	De-Na-Soune International
	11	Daum School (Yeheemjah Korea)
	12	Fayston Preparatory of Suil
	13	Gia Micro School
	14	Gia Micro School
	15	Haven Christian School
	16	Hillside Collegiate
	17	Hillside Collegiate Sonoda Ace...
	18	HS Prep Academy
	19	Iva-Skole International / ...
	20	Korea Christian International...
	21	Korea Liberal Arts School - Su...
	22	Libertus Scholans College Prep
	23	Lighthouse International School...
	24	MICA International Scholars
	25	Mountain Cherry Academy
	26	Nakil International School Su...
	27	Yeheemjah Korea Daum School
	28	Plymouth International Christi...
	29	Providence Christian Academy
	30	Saint Paul Academy, Daechi
	31	Saint Paul American Scholars
	32	Saint Paul Preparatory Seoul
	33	SALT International School
	34	SEED International School
	35	Seoul Academy
	36	Seoul Christian School
	37	Shepherd International Educati...
	38	Shepherd International Educati...
	39	Shepherd International Educati...
	40	SIS Canada
	41	Skysun International Christian...
	42	The PRISM School
	43	US International School
	44	US International School
	45	Yuhan S. Stanley Gangnam L...
	46	Waldensian International Acade...
	47	Wellton Christian Internationa...
	48	Westminster Canadian Academy

MSA-CES (19기관) (미중부교육청)	기관명
1	Big Heart Christian School
2	CityHill Academy
3	Cornerstone Collegiate Academy of Seoul
4	Fayston Preparatory School
5	Haven Christian School
6	Hillside Collegiate and Hillside Junior
7	Korea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8	Korea Liberal Arts School
9	Lighthouse International School
10	MICA International Scholars
11	Mountain Cherry Academy
12	Providence Christian Academy Korea
13	Saint Paul Academy, Daechi
14	Saint Paul American Scholars (SPAS)
15	Saint Paul American System, LTD (SPAS)
16	Saint Paul Preparatory Seoul
17	SALT International School
18	Seoul Academy
19	US International School

NCPSA (AI)
(48기관)
Accreditation International는 National Council for Private School Accreditation과 함께 승인되고 인정된 기관으로, NCPSA와 회원인종, 협력인종, 학생양도, 학년배정정책 및 계약을 맺고 있음.

MSA-CES (19기관)
(미중부교육청)
<https://han.gil/ikmv>

CIE (13기관) (캠브리지대학에서 만든 국제교육과정 연명방국가 학교들의 채택률이 높음)	기관명
1	Atherton International School
2	BEK Prep
3	Dulwich College Seoul
4	Geochang International School
5	Hyundai Foreign School
6	IEN Institute
7	Korea Foreign School
8	Namsung Elementary School
9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0	Seoriful International School
11	The British Secondary, Upper Gangnam House
12	YMK College
13	Young Moon Elementary School

IBO 교육프로그램	개수	기관명
	1	CHADWICK INTERNATIONAL
	2	DWIGHT SCHOOL SEOUL
	3	GYEONGGI ACADEMY OF FOREIGN LANGUAGES
	4	GYEONGGI SUWON INTERNATIONAL SCHOOL
	5	SEOUL FOREIGN SCHOOL
	6	DULWICH COLLEGE SEOUL
	7	TAEJO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8	GYEONGNAM INTERNATIONAL FOREIGN SCHOOL
	9	INTERNATIONAL SCHOOL OF BUSAN
	10	POSAN HIGH SCHOOL
	11	DAEGU SAMYONG ELEMENTARY SCHOOL
	12	SEODONG MIDDLE SCHOOL
	13	TAEJ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14	DAEGU JOONG ANG MIDDLE SCHOOL
	15	DAEGU YOUNGSUN ELEMENTARY SCHOOL (YS)
	16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LEMENTARY SCHOOL
	17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18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IDDLE SCHOOL
	19	BRANKSOME HALL ASIA
	20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IB (20기관)
IB PYP (초등)
IB MYP (중등)
IB DP (고등)
IB CP (고등_직업 관련)

Designed By Werge, ADSTOKS

국내 운영 국제학교 현황:

총 63개 기관 분석:

(101개 기관 조사-분석에서 제외)

- 해외 학력인증을 받았으나, 여학원, 군대내 학교, 의학전문 학교
- 국제학교와 별개로 IB 운영하는 초등, 고등학교 등은 분석에서 제외 (노란색 부분 해당).

American STEM Prep	NCPSA (AI)
1 Asia Pacific International School	WASC (미 서부교육청)
2 Atherton International School	CIE
Atherton International School	WASC (미 서부교육청)
3 BC Collegiate	WASC (미 서부교육청)
BC Collegiate	NCPSA (AI)
BEK Prep	CIE
4 Beyond Dream Global Leader Scholars	NCPSA (AI)
5 Big Heart Christian School	MSA-CESS (미 중부교육청)
Big Heart Christian School	NCPSA (AI)
6 BIS Christian Education	NCPSA (AI)
BIS Christian Education	WASC (미 서부교육청)
7 Branksome Hall, Asia	IB (IBO 국제교육재단)
Branksome Hall, Asia	WASC (미 서부교육청)
8 Busan Foreign School	WASC (미 서부교육청)
9 Busan Logos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NCPSA (AI)
10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IB (IBO 국제교육재단)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WASC (미 서부교육청)
11 Cheongna Dalton School	WASC (미 서부교육청)
12 City88 Academy	MSA-CESS (미 중부교육청)
City88 Academy	NCPSA (AI)
13 Collegiate Academy of Seoul	NCPSA (AI)
14 Conventure College academy of Seoul	MSA-CESS (미 중부교육청)
Conventure College academy of Seoul	NCPSA (AI)
Daegu Elementary School	COGNIA
15 Daegu International School	WASC (미 서부교육청)
Daegu Middle/High School	COGNIA
DAEGU JONGANG MIDDLE SCHOOL	IB (IBO 국제교육재단)
DAEGU SAMYOUNG ELEMENTARY SCHOOL	IB (IBO 국제교육재단)
DAEGU YOUNGSUN ELEMENTARY SCHOOL (YSES)	IB (IBO 국제교육재단)
DA-NA Scuola Internazionale	NCPSA (AI)
Daum School (Nehemiah Korea)	NCPSA (AI)
16 Dulwich College Seoul	CIE
DULWICH COLLEGE SEOUL	IB (IBO 국제교육재단)
Dulwich College Seoul	WASC (미 서부교육청)
17 DWIGHT SCHOOL SEOUL	IB (IBO 국제교육재단)
18 Fayston Preparatory School	NCPSA (AI)
Fayston Preparatory School	MSA-CESS (미 중부교육청)

Designed By L@rge, ADSTORE

구분	학교 수	설립주체	학교 수	설립유형	학교 수	해외 학력인증	학교 수	IB / AP	학교 수	국내 인증	학교 수
공립	4	기독교	20	공립국제학교	1	COGNIA	16	IB	11	교육부	16
사립	46	외국계열	18	인가국제학교	5	MSA-CESS	19	AP	30	지방교육청	7
외국계열	13	일반	25	미인가국제학교	27	WASC	29	해당 없음	22	제주특별자치도	1
총	63	총	63	일반학교 (해외학력인증)	3	NCPSA (AI)	48	총	63	해당 없음	39
				인가대안학교 (국내학력인증)	1	CIE	13			총	63
		일반에는 일반 법인, 기업체 등이 해당됨		미인가대안학교	7	총	125				
				인가외국인학교	13	(실제 기관 수)	101				
				미인가외국인학교	6						

Designed By L@rge, ADSTORE

국제학교의 다양성

- 인가관련 사항: 외국계열, 국내인가, 미인가 등
- 비전과 설립이념: 기독교 등 종교, 영어교육, 해외대학입학 등
- 교육과정: IB, AP 해외학력인증 프로그램,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등
- 해외학력인증기관: COGNIA, WASC, NCPSA, CIE 등
- 개설 학년: 유치원~고등학교 등

구분	구분	구분
입학요건	입학요건	입학요건
비전과 설립이념	비전과 설립이념	비전과 설립이념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학력인증	학력인증	학력인증
개설 학년	개설 학년	개설 학년

IB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창의성, 그리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IB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대학 입학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학업 성과를 요구합니다.

AP

AP (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 수준의 학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AP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은 대학 입학 시 학점과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구분	구분	구분
IB	IB	IB
AP	AP	AP
IB	IB	IB
AP	AP	AP
IB	IB	IB
AP	AP	AP
IB	IB	IB
AP	AP	AP

IB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창의성, 그리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IB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대학 입학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학업 성과를 요구합니다.

AP

AP (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 수준의 학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AP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은 대학 입학 시 학점과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Designed By L@rgo, ADSTORE

국제학교의 사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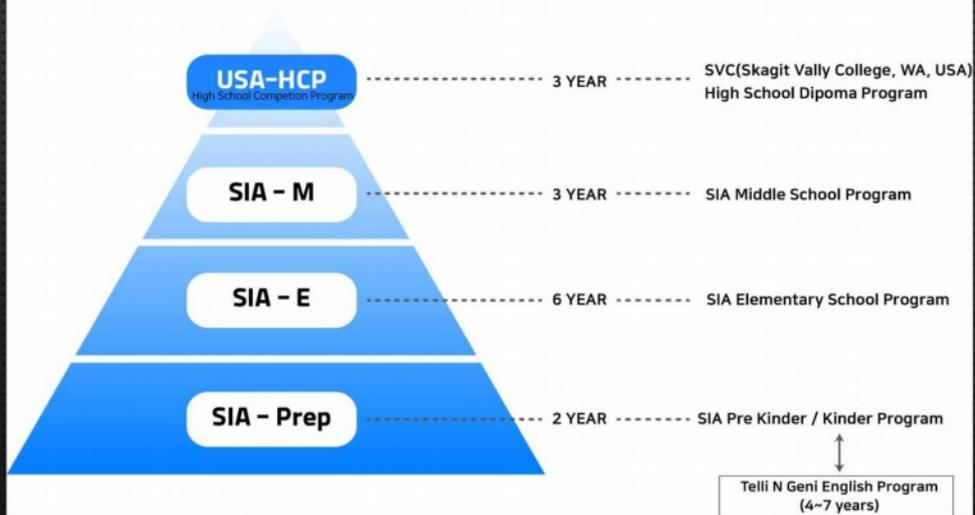
SIA (Sejong International Academy) 세종국제학교



• SIA Curricula: Talent Train Model (Lee, 2022)



SIA: Sejong International Academy



SIA 세종국제학교 교육과정: SIA-R (SIA Regular Credit Course)

1. 교육 목적:

-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
- 학습자의 재능을 발굴하여 함양하고,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교육
- 학습자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꿈을 키우며,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육

2. 교육 대상: Pre G (6개월 예비 반), 초등(6)+중학(3) (Pre G/ G1-9학년=9단계)

3. 교과목:

- Pre C (예비반): SIA Global Leader English(HE, SE, ME, LE)
- SIA-E (Grade 1-6 초등부): ASI 미국정규 프로그램(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4과목)
+ 한국 정규교육과정(국어, 역사, 사회) + SIA 특성화 수업
- SIA-M (Grade 7-9 중등부):
ASI 미국정규 프로그램(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포함), 보건 or 외국어-5과목)
+ 한국 정규교육과정(국어, 역사, 사회) + SIA 특성화 수업
- **SIA 특성화:** DHA, NICE, ATM-STEAM, AI-수-과학 기반 융합프로젝트 등 융합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 예체능: 음악(1인1악기), 체육(골프, 펜싱, 승마 등 예정), 통합미술 등



고등학교+대학교복합코스(H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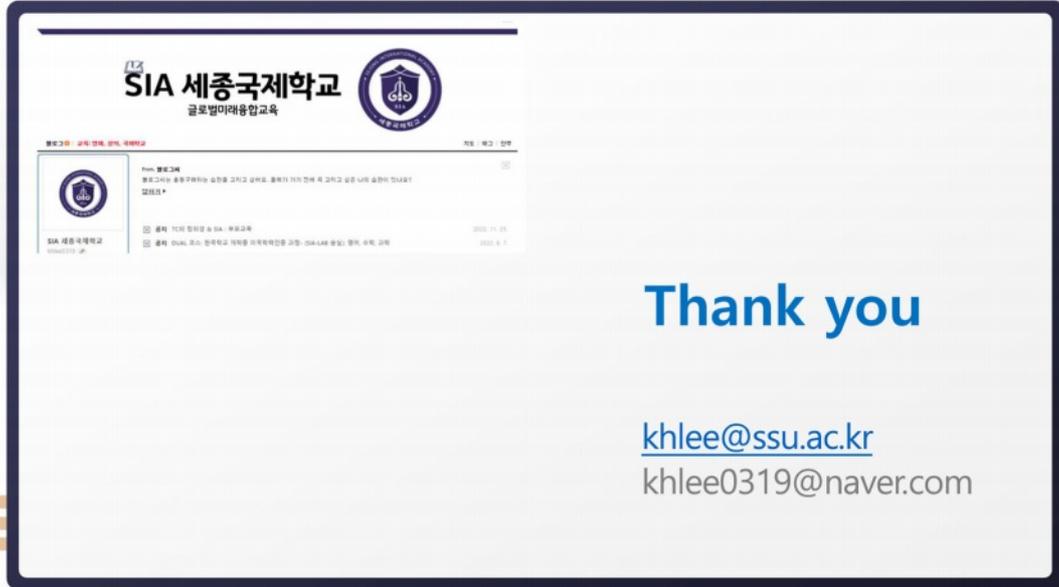
High School Completion Program (HCP)이란?

- 한국에서 중학교(SIA) 3학년(9학년) 졸업, 만16세 이상, 대학과정입학프로그램
- 입학 시 고등학교과정을 별도로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졸업을 위한 필수과목과 대학과목을 동시에 수강함으로써 졸업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미전역에서 워싱턴주 내 소수의 주립대학에서만 제공되는 특화프로그램임
- 졸업후에는 워싱턴주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고등학교 Diploma(졸업장)와 SVC에서 수여하는 전문학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됨



SVC Skagit Valley College INTERNATIONAL PROGRAMS





역량을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담아내는 방법 : 개념 학습에 관한 IB의 접근

조현영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

역량을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담아내는 방법 - 개념 학습에 관한 IB의 접근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조현영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목차 a table of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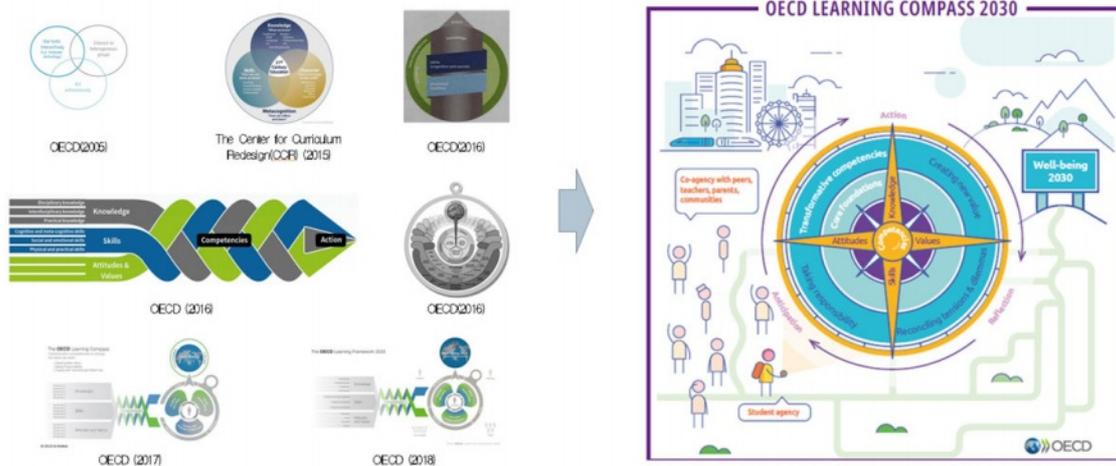
- 1 IB의 개념이란?
- 2 개념기반의 수업과 평가 설계
- 3 IB에서 개념에 접근하는 방법
- 4 개념학습의 설계 조건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1 IB의 개념이란?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1 역량과 학습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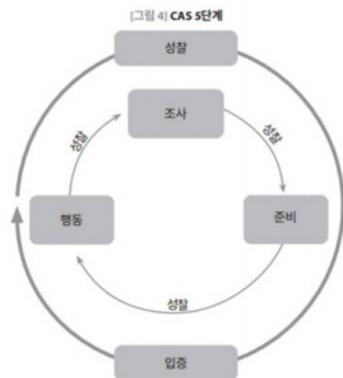
Part 1 **개념에 대한 탐구(Inquiry): 심층학습과 자기주도성**

불분명하고 초점이 맞지 않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연구 문제	심층 연구에 도움을 주는 분명하고, 초점이 확실하고, 좁은 연구 문제
호치민의 레닌에 대한 충성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호치민이 1920 년에 레니니즘(Leninism)을 채택한데 있어 민족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중국 연극의 역사는 무엇인가?	mel lan fang의 유산은 현대 jingju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식물에게 엽록소는 얼마나 중요한가?	잎 노화와 엽록소 생합성에 대한 키틴의 농도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미국 정부의 지출 정책은 어떻게 재편되었는가?	상승하는 COE 가격이 소비자 인구에 의한 신차 및 중고차에 대한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2012-2016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경제가 창출한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Part 1 **'입증'으로서의 성찰 개념 학습**

성찰의 시간

목적 의식이 있는 성찰은 양보다 질을 중요시합니다. 성찰을 위한 적절한 때와 횟수 및 그 방법은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모든 CAS 활동을 성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성찰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찰은 각자 개인의 선택으로 하는 성찰입니다. 성찰의 횟수에 대한 요건을 강조하거나 '모든 CAS 활동에는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와 같은 조건이 붙는다면, 성찰은 의무가 되고 성찰에 대한 CAS 본연의 목적과 반대됩니다.



성찰이란:	성찰이 아닌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직함 • 개인적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함 • 때로 어려움 • 때로 쉬움 • 때로 창의적임 • 자기인식을 구축함 • 학습에 필요함 • 자신의 행동과 느낌을 결합함 • 놀라움 • 계획에 도움이 됨 • 혼자서 혹은 타인과 함께 수행함 • 생각과 감정 및 아이디어를 다룸 • 관점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요됨 • 옮겨나 들림 • 좋거나 나쁨 • 채점하거나 등급을 매김 • 어려움 • 타인이 말한 내용을 모방 • 예측 가능 • 타인으로부터 평가받음 • 일어난 일을 단순 요약함 •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실행함 • 시간 낭비 • 서면으로만 가능 • 논외만 가능 • 교사의 주도하에서만 실행



Part 2

개념기반의 수업과 평가 설계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2 PYP의 초학문적 주제



Part 2 **PYP의 핵심개념과 UOI**

Key Concept	Question	Definition
Form	What is it like?	The understanding that everything has a form with recognizable features that can be observed, identified, described and categorized.
Function	How does it work?	The understanding that everything has a purpose, a role or way of behaving that can be investigated.
Causation	Why is it like this?	The understanding that things do not just happen, that there are causal relationships at work, and that actions have consequences.
Change	How is it changing?	The understanding that change is the process of movement from one state to another. It is universal and inevitable.
Connection	How is it connected to other things?	The understanding that we live in a world of interacting systems in which the actions of any individual element affect others.
Perspective	What are the points of view?	The understanding that knowledge is moderated by perspectives; different perspectives lead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understandings and findings; perspectives may be individual, group, cultural or disciplinary.
Responsibility	What is our responsibility?	The understanding that people make choices based on their understandings, and the actions they take as a result do make a difference.

2022 6학년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식 UOI 운영 계획

Grade/Year level: 6 ^o	Collaborative teaching team: Seunghoon Han, Hyukje Kim, Hyunsu Moon, Monika heathcote, Sanyoung Moon ^o
Date: 5.6 ^o	Timeline: (continued in original, revisiting once, or numerous times, discover beginning and ending, or investigating in parallel with others) 6.10.-7.15. ^o

Transdisciplinary theme 초학문적 주제 (Type Transdisciplinary theme here):
How We Organize Ourselves^o

Central idea 중심 아이디어:
경제 주체들의 편익을 위해 자원에 대한 경제적 선택은 달라진다.^o

Lines of inquiry 탐구목록:
1. 경제적 선택의 특징 2. 경제적 선택의 변화 3. 앞으로의 경제 발전.

Key concepts 핵심 개념: 기능, 변화, 책임 ^o	Related concepts 관련 개념: 편익, 자원, 선택 ^o	Learner profile attributes 학습자상: 탐구하는 사람, 비타협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o
---	---	--

Approaches to learning 학습 접근 방법:
조사기능, 사고기능, 대인관계기능^o

Action 행동: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비교하고 경제적 선택의 특징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다.^o
- 역사 속 경제적 선택이 편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어떻게 변화 하는지 찾아 설명한다.^o

2021학년도		탐구 단위 운영 개요 (Outline) Unit of Inquiry		표선초등학교 6학년
초학문적 주제 Transdisciplinary Theme	How We Organize Ourselves			
단원명	세계 속 민주시민			
운영 시기 / 자수	4월 2주 ~ 5월 2주			
중심 아이디어 Central Idea	민주시민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한다.			
핵심 개념 Key Concept	기능, 인권, 책임			
관련 개념 Related Concept	민주주의, 주인, 참여, 평화, 인류애			
학습 접근 방법 Approaches to Learning	사회적 역할, 사고 역할, 연구 역할			
학습자상 Learner Profile	탐구적 질문을 하는 사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탐구의 흐름 Lines of Inquiry	◎ 나라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 실천하기 ◎ 세계시민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행동하기 [6국01-03]결과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6국01-04]자료를 정리하여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6국01-06]드러나지 않거나 상충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6국02-03]글을 읽고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6국02-05]매체에 따른 다양한 위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 [6사05-01]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 [6사05-02]광복 이후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확대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살펴본다. [6사05-03]실상상황에서 결말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6사05-04]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다수결,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상황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지닌다. [6사08-02]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 본다. [6사08-03]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6사08-04]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 [6도03-03]도덕적 상상하기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 의 올바른 과정을 탐구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진다. [6도03-04]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관련 교과 / 성취기준 Transdisciplinary Connections/Achievement Standard				

Part 2

MYP의 핵심개념

MYP 주제 전반의 주요 개념			
미학	형식	체제	공동체
연관성	창의성	문화	발전
변화	관계	정체성	시간, 장소 및 공간
관점	국제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논리

Part 3

IB에서 개념에 접근하는 방법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3 **총체성으로서 핵심 개념**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문자와 식	다항식	식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인수분해는 복잡한 다항식으로 확장되어 적용된다.	다항식의 인수 나미지정리 인수분해	계산하기 이해하기
	방정식과 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은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는 해를 구할 수 있다.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 해결하기 설명하기
기하	도형의 방정식	좌표평면에 나타낸 점, 직선, 원과 같은 도형은 대수적으로 표현된다.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계산하기 이해하기 설명하기 관찰하기
수와 연산	집합과 명제	집합은 수학적 대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도구이며, 명제는 증명을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집합 명제	설명하기 표현하기 이해하기 증명하기 구별하기
함수	함수와 그래프	함수는 대수적 조작이 가능하며,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해하기 함수 구하기 계산하기 표현하기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세기 계산하기 문제 해결하기

Part 3 **총체성으로서 핵심개념**

성취기준

나. 성취기준

(1) 문자와 식

문자를 포함한 식의 사칙연산과 인수분해는 복잡한 다항식으로 확장되어 적용되고, 방정식과 부등식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는 해를 구할 수 있다. 다항식의 연산 및 방정식과 부등식은 수학의 여러 분야 학습의 기초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 다항식의 연산

[10수학01-01]다항식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 나머지정리

[10수학01-02]활동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10수학01-03]나머지정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인수분해

[10수학01-04]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5]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

[10수학01-06]이차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의 뜻을 안다.

[10수학01-07]이차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10수학01-08]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교과의핵심개념

핵심 개념	핵심개념의 의미
근삿값	어떠한 수치에 정확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량을 뜻합니다.
변화	크기, 숫자 또는 동작이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치성	완전히 같거나 상호교환 가능함을 뜻하며, 명제, 수치, 수식 등에 적용됩니다.
일반화	특정 사례를 근거로 들어 표현한 일반화를 뜻합니다.
모델링	실제 세계를 표현하는 목적으로 수학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패턴	수학적 체계에서 기본이라고 보여지는 질서, 규칙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수량	수나 수치의 의미입니다.
관계성	수량, 특성 또는 개념 간의 관계를 뜻하며, 그 관계는 모델, 규칙, 명제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학습자 주변의 세계의 패턴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표현	수학적 정보를 문자, 식, 도표, 표, 차트, 그래프, 모델 등으로 대신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간	개체를 그리기 위한 기하학적 차원의 틀을 말합니다.
체계	상호 연관된 요소들의 그룹을 뜻합니다.
타당성	정확한 결론 혹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이르기 위해 잘 설계된 수학적 논리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Part 2 **내용과개념: 지식과지식의 활용**

주제 1: 수와 대수

개념:

수와 대수를 사용하여, 패턴의 표현 혹은 등차관계를 명시하며, 일반화가 가능하고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실제 상황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대수는 수개념을 추상화한 것으로 변수 등을 활용하여 수학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본 주제와 관련이 깊은 핵심개념: 일반화, 표현, 모델링, 동치성, 패턴, 수량

심화 단계로의 접근하기 위한 개념: 타당성, 체계

내용별 개념적 이해:

- 등차수열, 등비수열 및 급수의 구조를 가지고 실제 상황을 모델링하면 예측, 분석 및 해석이 가능합니다.
- 수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내면, 등가의 수량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 적절한 정밀도의 계산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수와 수식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항등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공식은 특정 예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반화로, 새로운 예시에 확장(적용)될 수 있습니다.
- 로그 법칙은 실제 상황을 모델링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수의 패턴을 의식함으로써 대수적 도구가 개발되고, 이를 이용하여 미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이항정리는 일종의 일반화로, 이를 이용하여 이항식의 거듭제곱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권장 수업 시간 및 목적: 19시간

수와 대수 주제의 목적은 학생에게 등차수열, 등비수열, 급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응용 및 기타 응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적 개념과 기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증명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Part 3 **사례1) DP 국어과**

[그림 III-8] Paper1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답하십시오. 여러분이 단원3에서 공부한 작품 중 두 작품을 참고해서 써야 합니다. 단원3의 작품 중 두 작품을 논하지 **않은** 답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작품을 읽을 때 글의 언어, 맥락, 구조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다루어야 합니다.

1. **오락과 교육 중 문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작품 중 **두** 작품을 참고하여 쓰십시오.
2.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문학 작품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특히 작품이 쓰여진 시대나 사회적 배경 또는 작가가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는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 작품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쓰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한 작품 중 **두** 작품을 참고하여 쓰십시오.
3. **특정 문학은 예술성보다는 정치, 사회, 종교, 이념 등을 목적으로 쓰이는 장르입니다.** 그 예로 인본 문학, 페미니즘 문학 (여성 문제를 다룬 문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작품들 중 **두** 작품을 참고로 하여 그 작품들 안에서 특정 문학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그 특징이 작품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쓰십시오.
4. **“은유법”은 사물의 상태나 특징을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히 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시에서 은유법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공부한 작품 중 **두** 작품을 참고로 하여 쓰십시오.
5. **문학 작품에서 등장 인물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공부한 문학 작품 중 **두** 작품을 참고로 하여 쓰십시오.
6. **문학은 도덕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문학 작품들 중 **두** 작품을 참고하여 쓰십시오.

Part 3 **사례2) DP 역사과**

[그림 2] DP 역사의 주요 개념

교수요목 개요

교수요목 구분요소	교수 시간	
	표준 수준	심화 수준
지방 주제	40	40
1. 군사 지도자들		
2. 정책과 영향		
3. 세계 대전 발발의 움직임		
4. 권리와 투쟁		
5. 갈등과 개념		
세계사 주제	90	90
1. 사회와 문화(750-1400)		
2. 전쟁의 원인과 결과(750-1500)		
3. 영토의 통합(750-1500)		
4. 문화기여: 서양(1400-1700)		
5. 초기 근대 국가(1400-1700)		
6. 사회 근대화 전쟁의 원인과 결과(1500-1700)		
7. 산업혁명의 기원, 발전 및 영향(1750-2000)		
8. 독립 운동(1800-2000)		
9. 인구 증가의 동향과 발전(1848-2000)		
10. 권위주의 국가(20세기)		
11. 20세기 전쟁의 원인과 결과		
12. 냉전: 초강대국 간 긴장과 경쟁(20세기)		
HL 옵션: 심화 학습		90
1. 아프리카의 동맹의 역사		
2.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		
3.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역사		
4. 유럽의 역사		
내부 평가	20	20
역사 연구 과제		
총 교수 시간	150	240

지정 주제 5: 갈등과 개념

이 주제는 20세기 후반 갈등과 개념에 중점을 둡니다. 서로 다른 두 지역의 각각의 사례 연구가 주어지며, 반드시 두 가지 사례 연구 모두 학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연구는 1990년 르완다(Rwanda)에서 내전이 시작되고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 종결된 1994년 르완다의 대량 학살을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두 번째 사례 연구는 1989년 코소보(Kosovo)에서 시작되어 2002년 산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종결된 민족적 긴장을 중심으로 하는 1998-1999년에 발생한 코소보 사태에 초점을 둡니다.

사례 연구	상세 연구를 위한 자료
사례 연구 1: 르완다 (1990-1998)	<p>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르완다에서의 민족적 긴장, 후투(Hutu) 과두 정권과 인터하말레(Interahamwe), 연군의 역할 기타 원인: 경제적 상황과 식인자베의 유산 <p>르완다 내전(1990-1993), 하비야리마나(Habyarimana)와 은타타리마나(Mutiny) 발발 사건(1994)</p> <p>갈등과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르완다에국대전선(Rwandan Patriotic Front, RPF)적인가 르완다 정부 및 연군의 역할 집단 학살의 성격과 그 뒤의 반인륜적 범죄, 진사 심판 국제 사회의 대응, 국제연합 르완다 감시단(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for Rwanda, UNAMIR), 활동 부재의 이유, 르완다의 역할, 벨기에의 미국 <p>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영향: 난민 위기, 정의와 화해 국제적 영향: 르완다 사태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1994)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 르완다에국대전선(RPF)주도의 정부, 최고민주공화국에서 계속되는 전향(자이리)(Zaire)
사례 연구 2: 코소보 (1989-2002)	<p>갈등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르비아인과 코소보 알바니아인 사이의 민족 갈등과 알바니아 민주주의의 등장 정치적 원인: 헌법 개혁(1989-1994), 알바니아 독립 군사 조직의 탄압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와 이브라힘 루그비(Ibrahim Rugova)의 역할과 의미 <p>갈등과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소보 해방군 조직, 세르비아 정부의 경찰과 군대 인종 청소와 반인륜적 범죄, 라자크(Račak) 집단학살의 의미 국제 사회의 대응, UN의 대응,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p>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및 경제적 결과, 난민 위기와 사회 기반 시설의 훼손 코소보 내 정치적 영향으로 이브라힘 루그비와 대통령 당선(2002) 국제적 대응과 영향,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밀로셰비치 기소

Part 3 DP의 역사과 핵심개념과 평가



평가 목표 1: 지식과 이해력

- 구체적이고 관련 있는 정확한 역사 지식을 보여줍니다.
- 역사적 개념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 역사적 자료에 대한 이해를 입증합니다. (내부 평가와 시험 1)

평가 목표 2: 적용과 분석

-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거를 제시합니다.
- 관련 있는 역사 지식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분석합니다.
-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내부 평가와 시험 1)

평가 목표 3: 종합과 평가

- 역사적 사실과 분석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답변을 완성합니다.
- 역사적 이슈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합하여 답변을 완성합니다.
- 자료가 가진 가치와 한계를 인식하며, 역사적 증거로서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내부 평가와 시험 1)

평가 목표 4: 적절한 기술의 사용과 적용

- 질문이 요구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상황에 초점을 맞춘 예제들을 구성 및 작성합니다.
- 역사기가 사용하는 방법과 역사가가 마주한 어려움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부 평가)
- 역사적 연구 및 조사에 적합하며 초점에 맞는 질문을 완성합니다. (내부 평가)
- 연구 기술, 구성력, 참조 및 적절한 자료 선택에 관한 역량을 입증합니다. (내부 평가)

시험 1(SL과 HL)

소요시간: 1시간

가중치: 30% SL, 20% HL

시험 1은 다섯 가지 지정 주제에 관한 사료 기반 시험입니다. 각 지정 주제는 두 가지 특정 사례 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험에서는 지정 주제의 특정한 두 가지 사례 연구 중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험에는 각 지정 주제 별로 네 가지 사료를 포함합니다. 자료는 1차 사료 또는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혼합한 것으로, 서면, 그림 혹은 도표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각 지정 주제에 대한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은 선택한 지정 주제의 네 가지 질문 모두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일부 질문은 한 가지 이상의 사료에서 나온 증거만을 사용하여 답을 합니다. 어떤 질문의 경우 학생은 사료에 포함된 증거뿐 아니라 지정 주제에 관한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파트 A	이 문제는 사료 중 하나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합니다.	3점
첫 번째 문제, 파트 B	이 문제는 사료 중 하나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합니다.	2점
두 번째 문제	학생은 사료 중 하나의 가치와 한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에서 지정된 사료의 기원, 목적과 내용을 언급해야 합니다.	4점
세 번째 문제	학생은 두 개의 사료가 지정 주제의 특정 정상을 연구하는 역사학자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 지를 비교 및 대조해야 합니다.	6점
네 번째 문제	평가적 질문으로, 학생은 사료와 본인의 지식을 모두 사용하여 답을 합니다.	9점

이 시험의 최대 점수는 24점입니다. 시험별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여 채점합니다. 하지만 각 지정 주제의 마지막 문제는 시험별 채점 기준표 외에도 전체 적용되는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여 채점합니다.

Part 3 사례3) DP 수학과

Finding Surface Area of Human Habitant in the space
Finding surface area of torus

Introduction

In sci-fi movie *2001 - Space Odyssey*, there is a model in which people live space. Torus, which defined as a model formed by revolution of a closed curve that is a line lies on the same plane and in 3-dimension, looks like a doughnut shape. (Merrisan-Webster) In the movies, it is used to form artificial gravity same as that of the Earth. By rotating the torus, the centrifugal force, which is the force head to the opposite side of the center of the torus, forms the artificial gravity of 1.0g and makes people to live in that place with same gravity as in the Earth. 1.0g of artificial gravity is same as 9.8m/s², which is gravitational acceleration in the Earth. (What's) During the research, I found out that Stanford torus is a model that is torus and makes artificial gravity of 1.0g. It is strictly modeled that it has the specific values that NASA fixed. However, none of the primary sources or the secondary sources that I used has information about the area that human can live in the Stanford torus. I though this area is most important among all since Stanford torus is initially made to use as space colony. Thus, my aim is to find the surface area of human habitant that has artificial gravity of 1.0g of Stanford torus and the percentage of it over the whole surface area of torus.

Briefly, it is to finding the green colored area that has artificial gravity of 1.0g (9.81 m/s²) in the figure 1.

Figure 1 3D model of torus

composition. A definite integral of non-elementary integrals are therefore impossible to be parted down to elementary function by hand. This is where we use a calculator for easier and faster calculation.

Calculating Definite Integrals

Definite Integral is an integral that is calculated between two specified limits, usually expressed in the form of $\int_a^b f(x) dx$. For a function $f(x)$, its definite integral can be expressed as a formula below. The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allows definite integrals to be computed in terms of indefinite integrals. If F is the indefinite integral for a continuous function $f(x)$, then the definite integral for the function can be expressed as below.

$$\int_a^b f(x) dx = F(b) - F(a)$$

Specifically, consider the function $f(x) = x^2$. The definite integral from 0 to 2 can be written as:

$$\int_0^2 x^2 dx = \frac{1}{3}x^3 \Big|_0^2 = \frac{8}{3}$$

Below is the graph of $f(x)$.

[그림 III-12] 수학과 내부평가 과제의 예시(IA example)

Part 3 **사례3) DP 수학과**

Command terms with definitions

Students should be familiar with the following key terms and phrases used in examination questions, which are to be understood as described below. Although these terms will be used in examination questions, other terms may be used to direct students to present an argument in a specific way.

Calculate	Obtain a numerical answer showing the relevant stages in the working.
Comment	Give a judgment based on a given statement or result of a calculation.
Compare	Give an account of the similarities between two (or more) items or situations, referring to both (all) of them throughout.
Compare and contrast	Give an account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or more) items or situations, referring to both (all) of them throughout.
Construct	Display information in a diagrammatic or logical form.
Contrast	Give an account of the differences between two (or more) items or situations, referring to both (all) of them throughout.
Deduce	Reach a conclusion from the information given.
Demonstrate	Make clear by reasoning or evidence, illustrating with examples or practical application.
Describe	Give a detailed account.
Determine	Obtain the only possible answer.
Differentiate	Obtain the derivative of a function.
Distinguish	Make clear the differences between two or more concepts or items.
Draw	Represent by means of a labelled, accurate diagram or graph, using a pencil. A ruler (straight edge) should be used for straight lines. Diagrams should be drawn to scale. Graphs should have points correctly plotted (if appropriate) and joined in a straight line or smooth curve.

[그림 III-13] Command Terms with Definition

Notation list

Of the various notations in use, the IB has chosen to adopt a system of notation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This notation is used in the examination papers for this course without explanation. If forms of notation other than those listed in this guide are used on a particular examination paper, they are defined within the question in which they appear.

Because students are required to recognize, though not necessarily use, IB notation in examin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teachers introduce students to this notation at the earliest opportunity. Students are not allowe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is notation in the examinations.

Students must always use correct mathematical notation, not calculator notation.

\mathbb{N}	the set of positive integers and zero, $\{0, 1, 2, 3, \dots\}$
\mathbb{Z}	the set of integers, $\{0, \pm 1, \pm 2, \pm 3, \dots\}$
\mathbb{Z}^+	the set of positive integers, $\{1, 2, 3, \dots\}$
\mathbb{Q}	the set of rational numbers
\mathbb{Q}^+	the set of positive rational numbers, $\{x \mid x \in \mathbb{Q}, x > 0\}$
\mathbb{R}	the set of real numbers
\mathbb{R}^+	the set of positive real numbers, $\{x \mid x \in \mathbb{R}, x > 0\}$
\mathbb{C}	the set of complex numbers, $\{a + ib \mid a, b \in \mathbb{R}\}$
i	$\sqrt{-1}$
z	a complex number
z^*	the complex conjugate of z
$ z $	the modulus of z
$\arg z$	the argument of z

[그림 III-14] Notation List

Part 4

개념학습의 설계 조건

Part 4 **개념학습의 설계 조건1-다면적 평가**

평가 목표	시험 1 %	시험 2 %	시험 3 % (HL에만 해당)	수학적 탐구 %
지식 및 이해	20~30	15~25	10~20	5~15
문제 해결	20~30	15~25	20~30	5~20
의사소통과 해석	20~30	15~25	15~25	15~25
테크놀로지	0	25~35	10~30	10~20
추론	5~15	5~10	10~20	5~25
탐구 접근 방식	10~20	5~10	15~30	25~35

Part 4 **개념학습의 설계 조건2-심층학습(완결성, 연속성, 자기주도성)**

Group 3: 개인 과 사회	경영 관리	SL	서면과제: 실제 이슈들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3-5개의 지지하는 글을 바탕으로 해설을 적어본다.(최대 1500자)
		HL	조사 프로젝트: 조직이 직면한 이슈 혹은 조직에서 내린 결정에 대하여 보고와 조사를 한다.(최대 2000자)
	경제	SL	포트폴리오: 네 개의 해설(논평)에 대한 포트폴리오
		HL	포트폴리오: 네 개의 해설(논평)에 대한 포트폴리오
	역사	SL	연구보고: 교과요목에 제시된 영역 중 한 가지에 대한 역사적 연구
		HL	연구보고: 교과요목에 제시된 영역 중 한 가지에 대한 역사적 연구
심리 학	SL	연구보고: 학생들이 수행한 실험연구 샘플에 대한 보고	
	HL	연구보고: 학생들이 수행한 실험연구 샘플에 대한 보고	
Group 5: 수학	수학 연구	SL	프로젝트: 측정 과정 혹은 관련된 정보의 수집, 이후의 분석과 평가에 대한 개별 과제
		SL	수학적 탐구: 수학 SL의 내부평가는 개별 탐구과제이다. 이것은 수학 연구 영역과 관련된 서면 과제이다.
	수학	HL	수학적 탐구: 수학의 연구 영역과 관련된 개인 탐구 서면 과제

출처: IBO(2010b)

Part 4 개념학습의 설계조건3-메타적 평가설계(정의적 영역)

기준 C 직접 참여

성취단계	설명
0	아래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직접 참여한 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2	직접 참여로 중요한 역할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3	충분하는 직접 참여의 흔적이 있습니다.

'직접 참여'의 기준은 학생이 수학을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의 참여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노력을 측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접 참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립적이거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수학적 개념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탐구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수준의 직접 참여의 더 자세한 예시는 교사용 보조 자료(TSM)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이 탐구 결과에 직접 참여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참여했다고 교사가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시각이 반영되지 않은 교과서 방식의 서술이나, 이미 있는 수학적 서술 방식을 모방하는 것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역할: 몇 가지 사례에서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 명백해야 하고, 탐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작가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하는 역할: 학생은 수많은 사례에 직접 참여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내용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하여 탐구를 창의적으로 진전시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생의 접근을 통하여 탐구 주제의 맥락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더욱 높였으며, 다른 학생들이 해당 학생의 의도를 잘 이해하였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 ...

기준 A	형식
기준 B	수학적 의사소통
기준 C	직접 참여
기준 D	성찰
기준 E	수학의 활용

Part 4 개념학습의 설계조건3-메타적 평가설계(정의적 영역)

기준 D 성찰

성취단계	설명
0	아래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성찰의 흔적이 약간 있습니다.
2	의미있는 성찰의 흔적이 있습니다.
3	비판적 성찰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찰'의 기준은 학생들이 탐구 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방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찰은 결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결과를 간단히 설명하기만 하는 것은 제한적인 성찰을 의미합니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려면 더 심도 있는 성찰을 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성찰을 보여주는 방식의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탐구 목표와 연관을 지어 탐구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거나, 다른 수학적 접근을 비교하거나 한계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비판적 성찰은 매우 통찰력 있거나 결정적이고 중대한 성찰입니다. 결과값을 다시 설명하면서 탐구를 심화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탐구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성찰을 보여주는 방식의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상하거나, 결과가 암시하는 점을 토론하거나, 접근 방식의 강점과 약점을 나누거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당한 흔적**은 중요한 성찰이 곳곳에 나타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흔적이 탐구 과정의 결론에만 보이는 경우, 등급 3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탐구에서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입증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내용의 수준이 질적으로 높아야 합니다.

다른 수준의 성찰에 대한 더 자세한(선택 사항) 예시는 교사용 보조 자료(TSM)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 A	형식
기준 B	수학적 의사소통
기준 C	직접 참여
기준 D	성찰
기준 E	수학의 활용

Part 4 **개념학습의 설계조건3- 메타적 평가설계(정의적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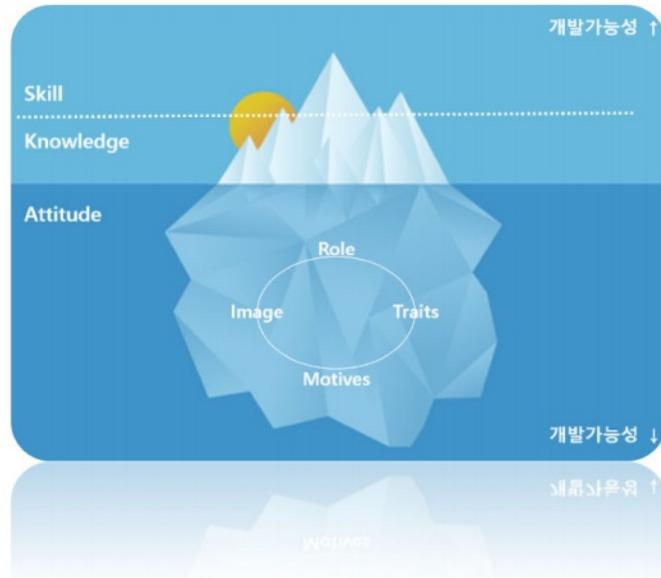
	A의사소통	B수학적표현	C학생의직접적참여도	D비판적성찰	E수학적난이도
0	아래기술된기준이하	아래기술된기준이하	아래기술된기준이하	아래기술된기준이하	아래기술된기준이하
1	어느정도논리의일관성이있음	적절한수학적표현을일부사용함	학생이직접수행하지않은증거가있음	성찰이미흡하거나피상적인증거가있음	관련있는수학적기술이쓰였음
2	어느정도의논리의일관성과전체구조의조직이보임	수학적표현들이대부분적절함	학생이직접수행한증거가약간있음	유의미한성찰의증거가있음	관련있는수학적기술이사용되었고미흡한해석이제시되었음
3	논리가일관되고구조가잘조직되어있음	보고서전체의수학적표현들이모두적절함	학생이직접상당부분을수행한증거가있음	비판적성찰의증거가많이있음	수업수준에맞는관련수학적기술이사용되었고미흡한해석이제시되었음
4	주제가일관되고잘조직되어있으며명료하고완성도가높음		학생이탁월하게수행한증거가충분히많음		수업수준에맞는관련수학적기술이사용되었고일부는정확하며수학적지식과해석이약간제시되었음
5					수업수준에맞는관련수학적기술이사용되었고,대부분정확하며,충분한지식과해석이제시되었음
6					수업수준에맞는관련수학적기술이사용되었고,모두정확하며,빈틈없이완벽한지식과해석이제시되었음

마치며 **개념학습이란?**

제한된 어휘력은 제한된 경험 때문일 수 있으며, 많은 단어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 너무 좁은 대인 접촉 때문일 수 있으며, 또한 부주의와 산만함 때문일 수 있다. 내려간 마음의 틀은 언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사실상 모든 사건과 조건에 해당되는 '거시기' 와 같은 불분명한 용어를 선호하면서 단어를 느슨하게 사용한다.

존 듀이(How We Think(1910), 하우 위 싱크: 과학적 사고의 방법과 교육)

마치며 **개념학습과 역량(力量, competency)**



감사합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3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상호문화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세션 2

재외동포청 설립과 문화교류

주제발표 03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분석과 전망

정상우 | 인하대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주제발표 04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와 차세대 육성

김봉섭 |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분석과 전망¹

정상우

인하대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I | 서론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는 2021년 현재 180개국에 약 7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² 전체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2,511,521명, 외국국적동포는 4,813,622명으로, 180개국에 총 7,325,143명의 재외동포가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정주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³ 2021년 2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011,259명이며, 동포는 797,525명으로서 체류 외국인 대비 39.5%를 차지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재외동포(F-4) 469,619명, 방문취업(H-2) 143,399명, 영주(F-5) 108,448명, 방문·동거(F-1) 45,562명 등이다. 약 80만명의 한국 체류 동포 중 12만여 명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제조업 등의 38개 단순노무업종에 취업 중이다.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세계화와 다문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이주의 방향이나 성격이 변화해 왔다. 세계화 시기 이전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중심이었다면, 1990년대 IMF를 겪으면서 해외동포들의 한국과 협력이 증가하면서 재외동포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법(1997)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을 제정하는 등 재외동포에 관한 입법이 제정되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제정시 재외동포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다. 최근 재외동포에 대한 입법이 증가하였는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1 이 글은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2022)가 외교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연구』 중 필자가 집필한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2 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 2021 및 외교부 보도자료, 2021년 12월 24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440>

3 광재석,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와 통합』 제14권,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2021, 20쪽.

등에 관한 법률(200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019),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0)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재외동포기본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규범적으로 살펴보고, 법안들을 비교분석한 후 입법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의 규범적 근거

1

재외동포 보호의 헌법적 근거

(1) 헌법 전문

헌법 전문에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대한국민”과 “민족”은 헌법제정권력으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민과 민족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국적법상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과 같은 헌법제정권력임을 나타냄으로써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족에 기반한 국가의 발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나타난 “민족의 단결”이 현대적 의미로 이른바 초국가적 민족을 의미하거나 헌법 제정 당시 디아스포라 인게이지먼트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제강점기 민족의 이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 헌법제정권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현인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상 민족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원리로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민족에 대한 헌법의 확장, 민족 구성원 사이의 평등 보장, 민족의 정체성 유지, 민족 단위의 국가 형성과 유지 및 발전 등을 민족국가원

⁴ 이철우, “재외동포정책과 초국가적 민족의 헌법적 정초”, 『유럽연구』 제37권 제4호, 한국유럽학회, 2019.

리의 내용으로 제안하기도 한다.⁵

우리 헌법에서 민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국적인 한민족에게 헌법해석을 통해 우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미 국적법에서 이러한 우대가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재외동포법도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국적법에서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특별귀화 등 국적 취득을 완화하고 있다. 이미 외국국적동포를 외국인보다 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우대는 헌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다만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즉 모든 면에서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법 해석 이외에 국제법 관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재외국민 보호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해당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각종 지원을 뜻한다.⁶ 헌법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은 거의 없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외국의 영주허가를 가지거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재외국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외국국적 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지만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공동체 구성원임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외국인인 재외동포는 제외되는 개념이다. 이는 헌법국가로 발전한 국민국가 이후에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해외에 있는 국민들의 경우 주권이 미치는 범위 밖에 체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⁵ 허완중,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⁶ 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국가에 대해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나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은 많지 않다. 즉 재외국민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선거권이 오랜 기간 보장되지 못한 점, 한-베 자녀 보호의 미흡, 재외국민 교육의 사각지대 등 재외국민 보호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에 재외국민 교육과 영사조력에 대한 입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전까지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은 재외동포에게 단순한 출입국의 편익을 제공해주면서 그들을 보호대상이나 권익증진 노력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체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헌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재외국민 이외에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귀환이나 보호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주의 역사가 반강제적이거나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3) 문화국가의 원리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의 취임 선사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 민족문화라는 용어에 대해 전통문화로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민족문화를 국수주의적 또는 배타주의적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며, 문화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민족은 문화적 통합의 기반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의 근간이 되고 통일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문화국가의 원리 하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어디 체류하든 간에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민족의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도 발전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국가의 원리는 재외동포에 대한 한민족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문화교류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2 재외동포의 인권 보장

(1) 재외동포의 기본권 제약

헌법상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명시적 규정이 있고 재외국민의 경우 최근 선거권, 교육권 등이 확대 보장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과 권익 보장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도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외국국적동포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시급한 시정이 필요한 지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취급, 국가에 의한 반강제적 이주가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이들이 과거 경험했던 인권 침해적 상황들에 대한 회복적 조치로써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할린 동포, 베트남전(1960~75)에 참전했던 한국인 병사와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라이 타이한, 한베가족 2세, 필리핀의 코피노, 해외입양동포들은 한국국적 취득이나 한국으로 입국이 쉽지 않다. 이것 자체가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인지 또는 귀화, 국적회복 등을 쉽게 해결 필요가 있다. 부모의 기록을 찾는 것을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국적 취득이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들은 부모의 기록을 찾지 못하거나 입양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법상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허가, 인지 등이 있으나,⁷ 이른바 ‘모국귀환권’에 대한 적극적 규정이 없다.⁸ 그러나 세계인권선언문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제인권규약 제12조 제4항은 “어느 누구도 모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모국귀환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헌정사를 검토해 보면, 대한민국도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1948.5.11.)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등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는 “일본호적을 취득한 혈통상 조선인이 일본호적에서 이탈하면 조선국적을 소급적으로 회복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정부수립 이후 제정 국적법(1948.12.20.)에서는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를 국민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동포 1세대와 2세대에 대해 한국으로의 귀환을 긍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모국귀환권을 헌법상 기본권 수준은 아니지만 이중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국적회복이나 귀화 등에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 일반적으로 모국귀환권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모국으로 귀환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모국귀환권은 이주의 역사에 비추어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필요보다는 이주를 하게 되거나 한국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는 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되거나 한국인의 책임으로 외국에서 출산한 후 사실상 양육을 포기한 경우들이 모국귀환권을 인정해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에 관한 업무처리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예규) 참조.

8 최경욱,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 『통일인문학』 제66권,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2)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 금지

재외동포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 밖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보호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재외국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도 최소한 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기본권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선거권 등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국민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외국국적동포로서 누리는 권익은 외국인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지거래, 금융거래, 사회복지혜택 등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동포들이 외국인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결혼이민자보다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지원이 적은 점은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출입국은 완화하였지만,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서 보육과 교육, 보건과 의료,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재외동포법은 본래 조선족과 고려인은 제외하는 차별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 재외동포법은 정부수립 이전 해외동포를 불포함했었는데 이는 사실상 조선족과 고려인을 제외하려는 의도였던 것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동포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이러한 취지는 재외동포 정책 운영 과정에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출신국가별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은 재외동포 정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체류재외동포 가운데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간의 차별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H-2비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제도 도입 당시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이다. 즉 E-9 비자에 비해 우대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F-4 비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중국, 러시아 동포들도 F-4 비자로 편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H-2비자도 많다. 중국, 러시아 동포 중에는 F-4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나마 H-2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E-9보다는 입출국이나 종사업종에 유리하지만 여전히 F-4보다는 입출국과 영주권 취득, 취업 업종에 제한은 여전히 있다. 그밖에 재외동포들은 국적국마다 대체적인 특성이 있는데,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나 외교 지원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다고 느

끼기도 한다. 스스로 경제적 상황도 다르고 한국에서 지원하는 한국어교육 경험도 다를 수밖에 없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3) 재외동포의 현지적응 및 모국기여 지원 요청

우리나라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은 원칙적으로 현지적응을 우선하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현지적응이 성공적인 경우에도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외동포 관련 대표적인 법률인 재외동포재단법과 재외동포법 역시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입법 목적에 있어 재외동포재단법은 현지 정착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재외동포법은 국내 체류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하면서 해외동포의 한국 발전 기여에 대한 정책적 전환점을 이루었고, 이후 관련 법률들도 현지적응과 모국기여라는 두 원칙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현지적응과 모국기여라는 두 가지 목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기를 지나 이민·다문화 시기에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거주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을 체계화하고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추진 과정

제15대 국회에서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제15대 국회에서부터 재외동포기본법 발의가 시작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성곤 의원안은 그 간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다. 다행히 제20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논

의되었고 현 제21대 국회에서는 5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어 과거 어느 국회보다 법률 제정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제15대 국회 이후 제안된 재외동포기본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13317	재외동포보호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2021-11-15		
2112659	재외동포기본법안 (김석기의원등10인)	2021-09-24		
2110320	재외국민기본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2021-05-24		
2105240	재외동포기본법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2020-11-12		
2104882	재외동포기본법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2020-11-03		
2023422	재외동포기본법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2019-10-31	2020-05-29	임기만료폐기
2005436	재외동포기본법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2017-02-06	2020-05-29	임기만료폐기
1916415	재외동포기본법안 (김성곤의원 등 12인)	2015-08-13	2016-05-29	임기만료폐기
173635	재외동포기본법안 (권영길의원등 31인)	2005-12-16	2008-05-29	임기만료폐기
162266	재외동포기본법안 (조웅규의원등 55인)	2003-05-06	2004-05-29	임기만료폐기
150821	재외동포기본법안 (김원길의원등 12인 외 68인)	1997-10-15	2000-05-29	임기만료폐기
150715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구의원등 25인)	1997-10-15	2000-05-29	임기만료폐기

제21대 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안 3건, 재외국민기본법안 1건, 재외동포보호법안 등 총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표 1〉 참조), 해당 법안에 동의한 의원만도 54인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제정 가능한 재외동포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재까지의 입법노력, 쟁점 사항들을 분석 평가하여 최적의 입법 내용을 도출함으로써 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법적 이론과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제21대 국회 논의 상황⁹

(1) 전해철 의원안

전해철 의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11조).
-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2) 안민석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

⁹ 이하에 소개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임.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11조).
-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정책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서일준 의원안(재외국민기본법안)

서일준 의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은 재외국민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국가는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4) 김석기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
- 국가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병역의무가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

(5) 양정숙 의원안(재외동포보호법안)

양정숙 의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은 재외동포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외동포가 민족적 정체성과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안 제1조).
- 재외동포정책 및 재외동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효과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주재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집행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외교부장관은 형사절차상의 지원, 재외동포 범죄피해 시의 지원, 재외동포 사망 시의 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지원 등 재외동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 재외동포보호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은 재외동포가 부담하도록 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법안의 비교 분석

5개의 법안 중 서일준 의원안의 제명이 재외국민기본법안, 양정숙 의원안의 제명이 재외동포보호법안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외동포기본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 목적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은 대체로 유사하고(양정숙 의원안 제외),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전해철 의원안과 김석기 의원안, 민족적 유대감 유지를 명시한 안민석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으로 구별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정의에 있어서는 기존의 재외동포 관련 법제와 유사하게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로 구분한 전해철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과 재외국민 및 외국 거주 한민족 혈통으로 구분한 안민석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으로 구별될 수 있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거주국 정착 및 지위 향상, 한인 정체성 함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증진,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사회적응,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대체로 유사하다. 국제사회의 조화를 위해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규정한 것도 5개 법안 모두 동일하다.

기본계획은 3년 또는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김석기 의원안은 재외동포청장이 수립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전해철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고, 서일준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다.

김석기 의원안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하였고, 차별금지, 국내정착지원, 참정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표 2〉 제21대 국회 제안된 재외동포기본법안 주요내용 비교

	전해철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제명	재외동포 기본법안	재외동포 기본법안	재외국민 기본법안	재외동포 기본법안	재외동포 보호법안
편제	14개조	14개조	13개조	17개조	23개조
목적	재외동포정책 기본 사항 규정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	재외동포정책 기본 사항 규정 민족적 유대감 유지 및 모범적 거주국 구성원	재외국민정책 기본사항 규정 민족적 유대감 유지	재외동포정책 기본 사항 규정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	재외동포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민족적 정체성과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유지

	전해철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재외동포 정의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한민족 혈통 외국거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한민족 혈통 외국거주
재외동포정책	후술	후술	후술	후술	후술
정책 기본방향	거주국 정착 및 지위 향상 한인 정체성 함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증진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사회적응 인적자원개발	거의 유사	거의 유사	거의 유사	거의 유사
국제사회와 조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기본계획	외교부장관, 5년마다	외교부장관, 3년마다	외교부장관, 3년마다	재외동포청장, 5년	외교부장관, 5년마다
시행계획					없음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외교부장관 소속	국무총리 소속	외교부장관 소속(위원은 차관급)
재외공관의 역할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좌동	없음	있음	있음
재외동포정책 수행기관	없음	외교부장관이 지정(재외동포재 단 예정)	없음		
재외동포청	없음	없음	없음	신설(정부조직법)	없음
의견청취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세계한인의 날	10월5일 세계한인주간	없음	10월5일 세계한인주간	10월5일 세계한인주간	
실태조사	○	없음	○	○	있음
차별금지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전해철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국내정착지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참정권보장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비고					재외동포 보호에 관한 9개 조문 있음

IV

기본법 제정의 쟁점과 평가

1 재외동포의 개념의 체계 정당성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재외동포의 범위를 비교적 법적 개념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재외동포재단법은 한민족의 혈통이라는 다소 법률적이지 않은 개념에 기초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⁰ 먼저 재외국민 개념에 있어 재외동포법은 영주권 또는 영주목적의 전제로 하였고 재외동포재단법은 장기체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영주목적과 장기체류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단기체류자는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 개념의 경우 재외동포법보다는 재외동포재단법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외동포법은 출입국과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률인 반면, 재외동포재단법은 민간기구인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표 3〉 재외동포 관련 법제에서 재외동포 개념 비교

구 분	규정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재외동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¹⁰ 최윤철,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6, 7쪽도 같은 취지.

구 분	규정내용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근대 국가 수립 이후 국가공동체 구성원은 국적 또는 시민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를 하나의 범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고, 우리 헌법에서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국민과 외국인을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근대법체계에서 쉽지 않다.

현 국회에서 제안된 5건의 재외동포 기본법 관련 법안에서도 재외동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고 있다(표 3) 참조). 우선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대체로 개념이 명확하고 법안 간에 유사하다. 그러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i)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ii) 한민족 혈통으로 크게 구분된다. 한민족 혈통의 경우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표 4〉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재외동포기본법안에서 재외동포의 개념 비교

재외동포 범위	
전해철 의원안	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안민석 의원안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서일준 의원안	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김석기 의원안	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양정석 의원안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근대국가의 전통적인 입법 방식과 헌법상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명확화를 위해 재외국민은 국민이고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존의 입법체계와도 부합할 것이다.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의 적용은 특별히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럼에도 다른 법령에서는 양자는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비추어 재외국민 보호 입법은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다. 국제법적으로도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외교적 보호권 또는 재외국민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영사조력법에 의해 권리의 내용이 구체화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본질적으로 외국인이고 다른 국가의 헌법과 해당 정부의 주권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우리 법체계로 보호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재외동포법에서도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재외동포에 대한 재외동포기본법 적용에 있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엄격히 구별할 이유는 크지 않으며(예외: 선거권), 재외동포정책 적용 범위는 가급적 넓게 잡음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재외동포청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주권의 침해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행의 재외동포재단법에 규정된 정의를 따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인권증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시 적용 대상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재외동포의 권리나 권익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둔 법안은 김석기 의원안이 대표적이지만, 다른 법안들에 의하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안의 경우 차별금지, 국내정착지원, 참정권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차별금지는 거주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출신 국가별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국내정착지원은 출입국 편의 제공을 넘어 국내거주 해외동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참정권 보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행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근거 규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법안들에 의하더라도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 해외공관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국가가 보다 책임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경우 체류 국가에 따른 차별적 처우, 교육이나 보건의료 등에 있어 외국인보다 차별적인 처우가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바, 이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H-2 비자를 갖는 외국국적동포와 F-4 비자를 갖는 외국국적동포 간의 차별이었고,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권리 보장 범위가 F-4 > H-2 > E-7 > E-9 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차별금지과 국내입국과 활동 지원, 국내정착지원,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기본법 제정은 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강제이주 동포, 해외 입양동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미 사할린동포법이 제정되어 있고, 해외입양동포에 대한 특례 규정 설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 정치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주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에 대한 입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의 편의 제공, 경제적 투자 유인, 모국인 한국과의 교류 확대 등 경제적, 사회적 편의 제공이 주된 내용이었던 바, 기본법 제정은 이러한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의 현지에서 적응과 성장은 재외동포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성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도 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적용, 나아가 국민의 동포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

4 재외동포 정책의 범위

재외동포 관련 법률에서도 재외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지원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 가운데 외국국적동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 취급되며 예외적으로 출입국의 편의나 간접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거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제법상 모순 또는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재외동포를 우대하거나 이민을 장려하거나 거주국에서의 자립이나 정체성 유지에 대한 지원 정책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 국회에서 제안된 5건의 재외동포 기본법 관련 법안에서 재외동포 정책의 범위는 앞의 <표 5와> 같다. 재외동포정책의 경우 거주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대한민국의 관련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크게 구별되며, 대체로 내용은 비슷하지만 모국에서의 권익 신장

을 우선한 경우가 있다(김석기 의원안). 재외동포정책은 법안 가운데 김석기 의원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지원 방향을 명시하고, 개별 정책을 체계화한 것이 돋보인다.

〈표 5〉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재외동포기본법안에서 재외동포정책의 범위 비교

재외동포정책	
전해철 의원안	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나. 한인(韓人)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정책 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에 관한 정책 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마. 대한민국 방문 지원 및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 등에 관한 정책
안민석 의원안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한인(韓人)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대한민국 방문 지원 및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 등에 관한 정책
서일준 의원안	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류 사업에 관한 정책 나. 한인(韓人)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정책 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에 관한 정책 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마. 대한민국 방문 지원 및 재외국민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 등에 관한 정책
김석기 의원안	가.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책지원에 관한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모국 국민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합리적 병역의무 수행에 관한 정책 바. 모국 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사. 재외동포의 거주국의 재외동포단체 및 모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아.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 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양정석 의원안	재외동포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거주국에서 재외동포의 정착 및 지위향상을 지원하여,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대한민국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V

결론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재외동포에 관한 다수의 법률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기회로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 추진, 재외동포의 인권 개선과 차별 예방 등에 있어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관련 입법의 제안이 5건이고 동의한 의원이 50여명이 넘기 때문에 입법 추진도 희망적인 상황이다. 입법안 간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행 재외동포 관련 법제의 개념 정의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반영하면서도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좀더 적극적인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

재외동포법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이외에 다른 법제와의 관련성에도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지점이 있다. 예를 들면 정책 대상 중 해외 체류 재외동포만 포함할 것인지, 모국인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현재에는 외교부와 법무부 사이에 해외 소재 재외동포와 한국 체류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세계화 시대에 모국과 거주국의 구분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귀환 동포라는 범주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정부부처로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재단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정부부처로서 재외동포청과 민간단체인 법인으로서 재외동포재단의 업무와 기능은 구분 가능하고 역할을 달리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 정부수립과 그 과정에서 국민 개념의 형성 과정을 본다면 재외동포의 모국으로의 귀환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에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외동포의 유형에 따라 귀환권 또는 귀환에 대한 선택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크다보 본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와 차세대 육성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와 차세대 육성

2023.2.24(금)

발표자: 김봉섭(Kim Bongseop)

I. 재외동포정책 개관

I 역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목표

구분	김대중정부 (1998.2-2003.2)	노무현정부 (2003.2-2008.2)	이명박정부 (2008.2-2013.2)	박근혜정부 (2013.2-2017.5)	문재인정부 (2017.5-2022.5)
기본 목표			모국과 해외발전을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비밀번호 ① 비밀번호 ② 해외발전을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세부 목표	①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② 한민족의 유대강화와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③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①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② 한민족의 유대강화와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③ 동포간 화합 및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① 모국과 해외발전을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② 재외동포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문화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③ 모국과의 유대강화와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④ 한민족의 유대강화와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① 비밀번호 ② 해외발전을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③ 동포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문화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④ 통일준비역량 강화 및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① 정책성합양 및 역량강화 지원 ② 글로벌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동포 지원 ③ 지원
국정 과제	52.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	90. 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131. 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10. 해외체류국민의 권익신장과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인사회의 발전
주요 성과	재외동포출입국관리법 개정(1999)	세계한인의날 제정(2007)	제한적 복수국적 시행(2012)	재외동포한글교육 강화(2015)	재외국민보호법 시행(2021)

II. 세계는 해외인재 전쟁 중

1 재외동포 관련 조직

- 2020년 현재, 재외동포 관련 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한 국가는 총 113개국.
 <아시아·태평양> Australia, Bangladesh, Bhutan, Cambodia, Fiji, India, Laos, Malaysia, Mongolia, Nepal, New Zealand, Pakistan, Papua New Guinea, Solomon Islands, Sri Lanka, Thailand, Vietnam(17).
 <유럽 및 CIS> Albania, Armenia, Austria, Azerbaijan, Belarus, Belgium,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Hungary, Ireland, Kazakhstan, Kyrgyz Republic, Latvia, Moldova, Netherlands, Norway, Poland, Russian Federation,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ajikistan, Turkey, United Kingdom(28).
 <중남미>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Guyana, Honduras,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Uruguay, Venezuela(19).
 <아프리카> Algeria,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Cote d' Ivoire, Djibouti, Egypt,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Kenya, Lesotho, Liberia, Liby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Niger, Nigeria, Rwanda, Senegal, Sierra Leone, South Africa, Sudan, Swaziland, Tanzania, Togo, Uganda, Zambia, Zimbabwe(46).
 <중동> Iran, Israel, Jordan, Kuwait, Oman, Saudi Arabia, Syrian Arab Republic(7).

5

2 장관 부서

- 독립부서
 - <아르메니아> Ministry of Diaspora
 - <중국> Overseas Chines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 <조지아> State Ministry for Diaspora Issues
 - <그레나다> Office of Diaspora Office
 - <아이티> Ministry of Haitian Living Abroad
 - <이스라엘> Ministry of Diaspora Affairs
 - <모로코> Ministry Charged with the Moroccan Community Residing Abroad
 - <파키스탄> Ministry of Overseas Pakistan
 - <세네갈> Ministry of Senegalese Abroad
- 복합부서
 - <알제리> Ministry of National Solidarity, Family & the National Community Board
 - <아제르바이잔> State Committee on Affairs of the Diaspora
 - <방글라데시> Ministry of Expatriates' Welfare and Overseas Employment
 - <베냉>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frican Integration, the Francophone Community, and Beninese Abroad
 - <코모로스>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and Cooperation of the Diaspora
 - <도미니카> Ministry of Trade, Industry, Consumer, Diaspora Affairs
 - <도미니카연방>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Business & Diaspora Relations
 - <가나> Ministry of Interior, National Migration Unit
 - <인도네시아>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6

3 장(차)관급 부서

〈이라크〉 Ministry of Migration and Displaced
〈레바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migrants
〈말리〉 Ministry of Malians Abroad and African Integration
〈니제르〉 Ministry of African Integration and Nigerians Abroad
〈필리핀〉 Office of the President,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세르비아〉 Ministry of Religion and Diaspora
〈스리랑카〉 Ministry of Foreign Employment Promotion and Welfare
〈시리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xpatriates
〈튀니지〉 Ministry of Social Affairs, Solidarity, and Tunisians Ab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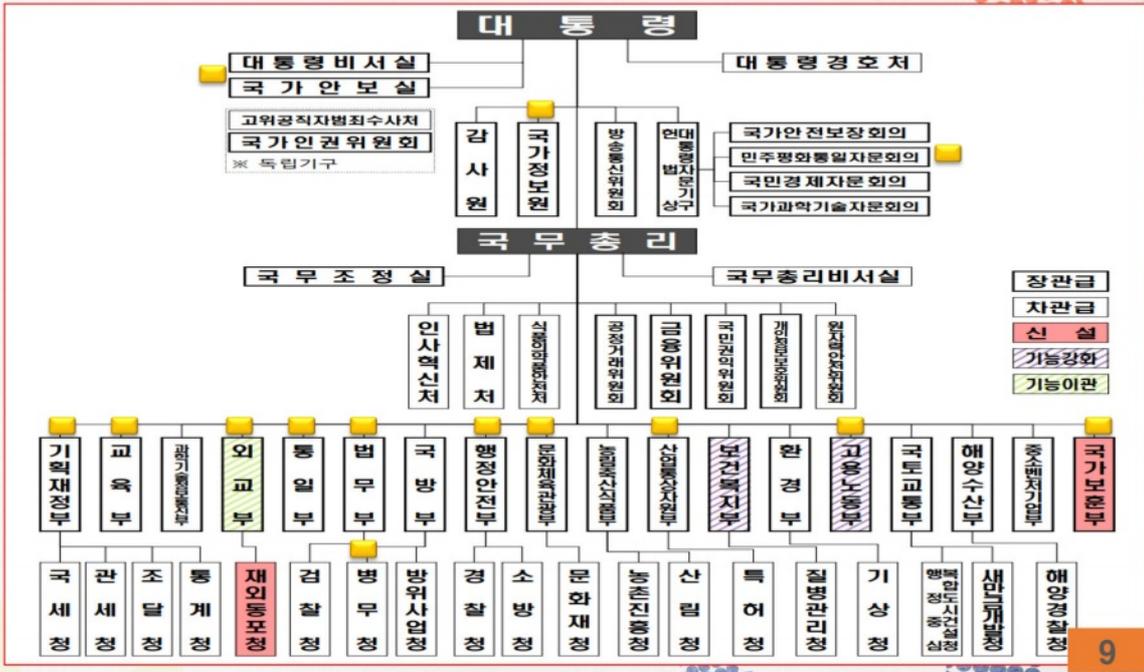
○ 기타

〈알바니아〉 Minister of State for Diaspora(2017 설치, . 2021 폐지)
〈인도〉 Ministry of Non-Resident Indians' Affairs / Ministry of Overseas Indian Affairs(2004 설치, 2016 외교부에 흡수 합병)
〈아일랜드〉 Minister of State for Diaspora at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2014 설치. 현재는 Minister of State for Overseas development aid and the Diaspora)
〈불가리아〉 State Agency for Bulgarian Abroad
〈마케도니아〉 Agency for Emigration
〈필리핀〉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
〈시에라리온〉 Office of the Diaspora
〈슬로바키아〉 Office for the Slovak Living Abroad
〈스위스〉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러시아〉 The Federal Agency for CIS. Compatriots Living Abroad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Cooperation

7

III. 우리의 선택은?

I 정부조직도



2 재외동포 업무 유관부서

- 외교부(주무부처): 재외동포 육성·지원, 해외사건사고 관련 재외국민보호, 영사관계 문서 공증·확인, 여권 및 입국사증 등
- 법무부: 재외동포법 관련 법령·정책, 재외동포 법적지위, 국적 취득·이탈, 출입국·국내체류 업무 등
- 교육부: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 업무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교류사업
- 통일부: 통일정책 관련 교육홍보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고용기본정책 수립, 외국인근로자 취업지원 등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 관련 인사 초청교류사업
- 병무청: 병역관리
- 민주평통: 중국·일본·아세안·대양주·북미·중남미 자문위원

3 재외동포재단(1997)

- 1997.10.30, 김영삼정부 시절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 Foundation)’은 정부 내 기관이 아닌 외교부 산하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재단법인으로 출범했음(“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
- 2007.4.11, 이명박정부 시절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조 제4항에 따라 외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었음.
- 그러나 정부 내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집행이 통합되지 않고, 동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부처·기관 참여자 수가 계속 늘어나자 재외동포재단을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11

4 대선 공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2022)

- 제20대 대선(2022)에서 여·야 대통령후보 모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 Administration, 외교부 소속 외청) 신설을 공약했음.
- 2022.10.7, 윤석열정부는 제21대 국회 제400회 회기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안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음(의안번호 2117759).
〈주요내용〉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함
- 2022.10.11,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음(2022.11.16 제10차 전체회의 상정. 2022.11.30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12

5 제21대 국회 계류법안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처

구분		주호영의원안 (2117759)	김석기의원안 (2102701)	설훈의원안 (2108271)
외교부 사무	- 현행 - -재외국민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삭제>	-재외국민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재외동포청 사무	- 현행 - <신설>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재외국민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주요 공통점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재단 해산(「재외동포재단법」 폐지)		
부칙 규정의 주요 차이점	재외동포청의 업무범위	-외교부의 관련 사무 +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의 관련 업무 +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처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교육·외교·통일·법무· 문화체육관광·고용노동· 국가보훈·병무 소관업무 승계) -재외동포재단 해산규정 없음
	재외동포재단 해산 관련	- 재외동포재단 해산에 따른 경과조치 또는 특례 미규정	- 재외동포재단 해산, 해산에 따른 재단의 재산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 재외동포재단 직원 경력채용에 관한 특례 등 규정	

13

6 국회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 ①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장관이 위원장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고, 외교부 및 법무부·교육부 등 개별 부처에서 재외동포 관련 소관업무를 담당하며, 외교부 산하 공공법인인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 대상 교육·문화·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②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고 재외동포재단 또한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재외동포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에 한계가 있으므로 700만이 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전담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음.
- ③ 개정안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수립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집행 기능을 통합하고, 관련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재외동포재단 집행 기능의 재외동포청 통합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부칙 제2조에서 「재외동포재단법」의 폐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④ 재단의 해산 여부, 해산과 관련한 재단 재산의 재외 동포청 또는 국고 귀속 여부, 해산 전 재단 행위의 승계 여부, 해산으로 인해 고용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재단 직원에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타 법률안(ex. 김석기 대표발의안, 설훈 대표발의안)과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음.

14

7 재외동포 현황(2021)

- 2021년 현재, 우리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인 재외동포는 180개국 732만 명
- 우리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일반체류자·영주권자·유학생, 251만 명)인구보다 한민족 혈통[父母兩系]으로서 거주국 시민권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481만 명)인구가 많은 구조
- 미국·일본·중국·러시아(CIS) 등 주변 4강에 90%가 집중하는 분포형태
- 186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떠난 이주 1세대보다 현지 출생 이주 2세 이하[차세대]가 훨씬 많아 모국과의 유대감과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
- 거주지별·국적별·세대별 한국어 구사 및 한국문화·역사 이해 정도도 제각각
-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제고와 함께 한민족으로서의 상호동질성 회복 노력 등이 시급한 선결과제

(단위: 명)

지역별	연도별	2015	2017	2019	2021	백분율(%)	2019년 대비 증감율(%)
총계		7,292,485	7,539,821	7,493,587	7,325,143	100	-2.25
동북아시아	일본	855,725	818,626	824,977	818,865	11.18	-0.74
	중국	2,585,993	2,548,030	2,461,386	2,350,422	32.09	-4.51
	소계	3,441,718	3,366,656	3,286,363	3,169,287	43.27	-3.56
남아시아태평양		510,633	557,791	592,441	489,420	6.68	-17.39
북미	미국	2,238,989	2,492,252	2,546,982	2,633,777	35.96	3.41
	캐나다	224,054	240,942	241,750	237,364	3.24	-1.81
	소계	2,463,043	2,733,194	2,788,732	2,871,141	39.20	2.96
중남미		105,243	106,794	103,617	90,289	1.23	-12.86
유럽		734,702	739,826	687,059	677,156	9.24	-1.44
아프리카		11,583	10,853	10,877	9,471	0.13	-12.93
중동		25,563	24,707	24,498	18,379	0.25	-24.98

※ 자료: 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20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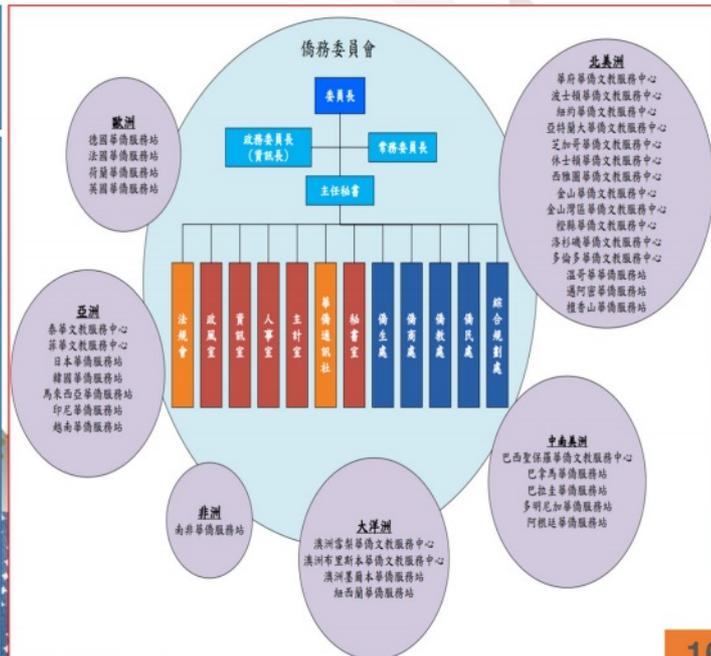
8 참고자료

<대만 교무위원회>
1926년 행정원 직속 장관급 독립부서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화교업무 전담기구 역할 수행

- <담당업무>
1. 교육및경제업무 기획·취급·상담·연락
 2. 화교단체·사회·학생 및 해외화예업무 기획·처리·상담·연락
 3. 화교 권익보호 및 신분증명서 발급
 4. 화교 관련 정보수집 및 실태보고
 5. 화교 관련 기타 업무

<조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정무직1, 일반직1), 교무위원 90-180명(임기 3년, 무급), 책임비서 1명, 5처(綜合規劃·僑民·僑教·僑商·僑生), 5실(비서·人事·政風·主計·資訊), 1사(僑務通訊), 1회(法規), 15개 해외문화교육센터 및 21개 해외복무거점(해외사무소)

<규모> 총 272명. 13억 1700만 신타이완 달러(2017년, 한화 487억 원)



IV. 쟁점과 제언

I 문제의식

- 정부 수립 75년 만에 찾아온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과제가 목전에 와 있음. 기존에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들과 향후 논란들을 꼼꼼히 짚어가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보편적 대안(개인·국가·민족·인류사회 이익)을 충실히 만들어야 함.
- 그런데 재외동포 업무의 주무부서인 외교부(재외동포영사실)가 갖고 있던 재외동포정책 수립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사업 기능의 일부만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 외교부의 관련 업무 외에 법무부·교육부·통일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부·병무청·민주평통 등 재외동포 유관 부처들의 업무까지 일정부분 또는 순차적으로 이관할 가능성은 없는지?

2 태도 변화

기존

1. 현지화(안정정책)를 근간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방향과 배치된다.

2. 독립된 행정기관을 설치한 외국 사례가 없다.

최근

☞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부합하도록 그간 소외된 동포사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제도를 강화한다.

☞ 총리실, 대통령실 산하에 동포전담기구를 두는 곳은 없다. (cf.그리스의 장관급 동포공공외교사무처, 러시아의 동포대외원조청은 우리와 달리 동포를 외교의 한 영역으로 활용)

19

2 태도 변화

기존

3. 국제사회 경계심 유발로 해 외인력진출·이민·통상 등에 끼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4. 전담기구가 신설되더라도 동포 대상 홍보·문화 지원·교육은 기존 부처들의 고유업무이므로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다.

최근

☞ 과거에는 외국국적동포 대상 사업에 대한 외교적 충돌문제가 거론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제기된 바 없다.

☞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 명(2021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

2 태도 변화

기존

5. 교육·문화·취업·금융·출입국·병무·국적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전담기구로 통합하는 것은 정부 기능·인력·조직상 문제가 많다.

6. 우리 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정·행정적 기대와 거주국 정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ex.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 강화+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을 재외동포청이 수행한다. 21

2 태도 변화

기존

7.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전담기구로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

8. 세계화 추진과 재외동포사회 활성화(ex. 재외동포재단 설치와 재단 역량 강화)

최근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정책 방향성 정립,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ex.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재외동포기본법령 제정).

☞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는 정부 기능 수행체계 정비(ex. 재외동포청 설치로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제도강화) 22

3 기대효과

1. 재외동포정책 목표·방향·실천과제의 체계화·통합화
2. 교육·출입국·국적·병역·세금·민원 관련 One-Stop 서비스 및 적극 행정 추진기반 구축
3. 관련 부처·기관의 기능·역할 재조정 및 컨트롤 타워 역량 확보
4. 동포사회 지원 民官産學 네트워크 및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
5. 재외동포사회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인프라 확대 가능
6. 재외동포 권익보호 및 관련 법·제도·정책·예산·기구 지속 개선
7. 국민과 재외동포 간 상호이해 제고 및 유대감 강화

23

4 제언

- 전담기구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은 물론 관련 사무·사업집행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One-Stop 서비스 조직이어야 하며, 그동안 사각지대나 소홀히 다뤄졌던 국내체류(귀환)동포·다문화동포·해외입양동포 업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세대인재 발굴·육성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강소(強小)조직이어야 함.
- 재외동포 업무를 선진화하려면 관련 정책의 전문성·일관성·체계성·효율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변국의 우려·불안 해소 등 사전정지(事前整地) 노력이 필요함.
- 재외동포를 ‘피해자·이탈자·반역자’ 등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 ‘국가발전에 기여한 영웅(1세대)·우리와 함께 할 동반자(차세대)’라는 긍정 이미지로 우리 국민 인식을 꾸준히 개선하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함(ex. 조사연구역량 강화, 교과과정·교과서 반영 등).

24

V. 차세대에 주목하라!

I 인구 변화

○ **국내인구 규모 급감: 2019년부터 생산가능인구, 2026년부터 총인구 감소 시작**

※ 2019년 5,200만 명 → 2049년 1,900만 명

※ 2067년 고령화 46.5%

○ **국내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달리 재외동포 인적자원 파워 증가 예상**

※ **재외동포인구는 남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 계속 증가 전망**

구분	1971	1976	1981	1986	1990	1991	1992	1995	1997	1999	2001
인구수	702,928	1,016,016	1,590,832	2,006,216	2,320,099	4,832,414	4,943,414	5,228,573	5,544,673	5,644,558	5,653,800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인구수	6,336,951	6,638,338	7,044,716	6,822,606	7,266,771	7,012,917	7,184,872	7,430,688	7,493,587	7,325,143	?

2 차세대 포용

- 재외동포인구 중 차세대(만15-45세) 인구는 25-40%(추산)
- 차세대 재외동포의 특성
 - 다민족화, 다중정체성 및 아시아인 정체성 대두
 - 모바일 정체성과 디지털 노마드
- 거주지역별 변화양상
 - 일본: 차세대의 일본귀화 증가
 - 중국: 차세대의 타민족혼인 증가
 - 러시아(CIS): 차세대의 타민족·타국민 혼인 가속화
 - 미국: 타인종·타민족 혼인 과반(Korean-.....-American)
- 차세대 재외동포 유대감 증진전략: 이민1세의 조국발전[경제] 기여만큼 2-3세 이후의 뿌리의식[교육] 증진이 핵심과제

27

Q & A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3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상호문화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세션 3

학교와 세계시민교육 사례연구

사례발표 01

글로벌 시대의 학교시민교육 정책과 실제

김요섭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사례발표 02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연구

배기택 | 인천논곡초등학교 교사

글로벌 시대, 학교시민교육의 정책과 실제

김요섭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학술대회(2023.2.24.)

글로벌 시대, 학교시민교육의 정책과 실제

- 인천형 세계시민교육과 학생자치를 중심으로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김요섭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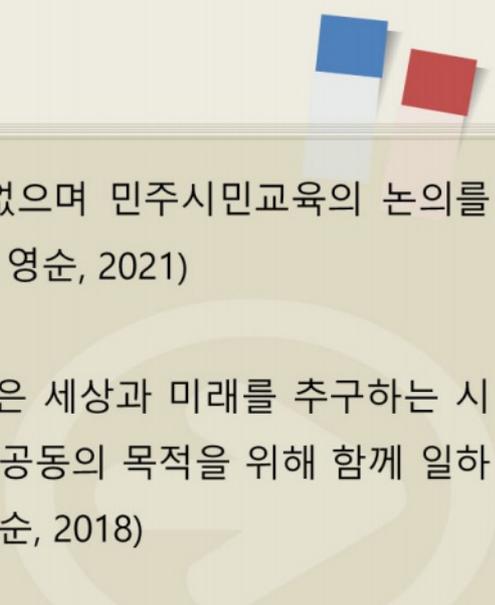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교육기본법 제2조, 2022).



훌륭한 정원사가 정원에 대한 책무성을 갖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정원에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 강조
정원을 효율적으로 가꾸기 위한 비옥한 토양과 적당한 일조량, 물과 같은 제대로 된 환경, 뿌려진 씨앗 살피기, 비료, 양분, 잡초에 대한 단호함(Eric Liu & Nick Hanau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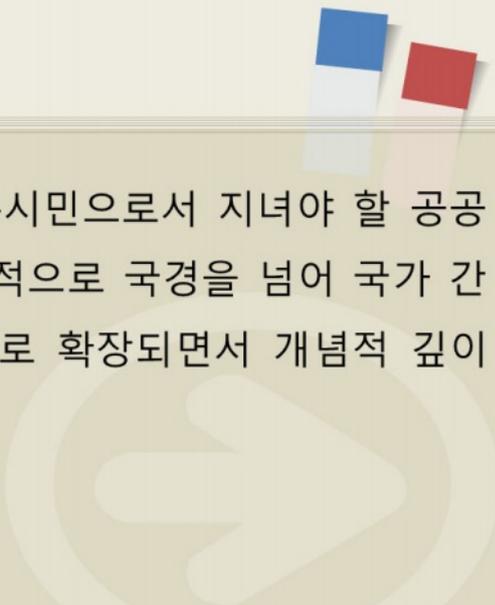


20세기 후반부터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시민성의 개념 또한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세계시민성이나 다문화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크게 증가(Oxfam 2015: 5)



시민은 특정 국가나 영토에 갇힐 수 없으며 민주시민교육의 논의를 세계시민성의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김영순, 2021)

능동적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가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추구하는 시민으로서 참여, 협동,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고 생동하며, 참여하고, 나눌 필요(김영순, 2018)



글로벌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공공성과 자율성의 범위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국경을 넘어 국가 간 연합체로, 더 나아가 지구촌 수준으로 확장되면서 개념적 깊이 확장(장의선 외, 2020)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다문화사회(인종, 언어, 민족의 다양화와 세분화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진입

다문화사회에는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 배경, 특성, 사고를 가진 이들이 모여있음.

학생들이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에서 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김위정, 2016)



이는 민주주의의 실천 차원에서 다원주의 실행을 의미,
학생들이 다양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과 관계됨(김영순, 2010)

오늘날 세계사적인 시대 조류는 다문화적 소양과 간문화적 기능을 갖춘 시민을 요구, 국가의 구성원들이 다문화 세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함은 물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초래(Banks, 2007)

즉 현시대의 흐름은 다문화적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 함양을 요구(추병완, 2010)

세계시민교육 정책

-2023 인천시교육청 교육계획을 중심으로

1. 교육청 직제로 '세계시민교육과' 부서 신설(2023.3.1.)

2.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5대 주요 정책으로 설정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147개를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바닷길과 하늘길, 15개의 국제기구 위치. 글로벌 허브도시 인천의 특성 교육 자원화
-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역량 함양
-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교류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정책 사업]

가. 외국어 역량 신장

- 1인 1외국어교육 확대: 다국어교육 학습자료 개발(영,중,일,러,베,태), 다국어 강사 교육, 세계시민체험플그램, 진로 연계 다국어 프로그램
- AI 외국어 교육시스템 운영
- 섬마을 맞춤형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 캠프 실시
- 체험형 영어프로그램 운영

나. 세계시민 자질 함양

- 인천세계시민학교 운영(62교), 세계시민교육 운영비 지원(340교), 세계시민교육 동아리 운영 지원(100팀)
-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자료 개발, 교원 연수 등
- 매년 학생 국제교류 1만명, 교원 국제교류 활성화
-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직속기관 신설
- 학교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사회참여 강화
- 학교구성원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다.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외국대학, 국제기구 연계 외국어교육 활성화
- 국제기구 연계 진로프로그램 운영
-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감 추천 전형 업무협약 체결

* 세계시민성의 차원에서 생태전환교육(채식선택급식제, 학교텃밭, 햇빛발전소 등) 강조

글로벌 시대, 학교시민교육 실천 사례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김요섭, 2023)

학생자치는 학생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이고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요청하는 일(김용, 2019)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 / 민주적 의사결정 / 참여, 실천,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던 건데요. 프레임이라는 사회적 기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한 활동이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상점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광고를 수주해서 그 광고를 리어카에 부착하고 그 광고비를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께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을 했던 활동입니다.



이제 재정착 난민 청소년과 함께한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 행사입니다. OO역 인근에 75세 이상 독거노인 40가정에 재정착 난민 청소년과 그리고 지금 한국 청소년들이 짝을 맺어서 직접 모든 가정에 반찬을 전달해드리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5개국, 7개국이 함께하고 있는 국제 비영리 청소년 단체이고요. 매년 이렇게 각 많은 파트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뽑아서 함께 활동을 하고 (중략) 저희가 지도 교사나 원가 그런 분이 계시지 않고요. 오로지 청소년들의 힘으로 청소년이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이끌어 나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최근에는 국내도 국내지만 국외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는 UN이랑 뉴욕 한인회에서 저희 단체랑 좀 이렇게 해서 재외동포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반찬 같은 것도 다 재정착 난민 부모님들 그니까 어머님들이 다 직접 닭찜 오이지 파리고추 멸치볶음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만드셔서 이런 요리 교실 활동을 하시면서 배우시고 직접 만든 것을 태반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던 행사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단체에서 후원해 준 그런 상품들을 증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

참고문헌



- 기본법(2022). 법률 제18456호.
- 김현영(2010).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 역량교육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18, 33-59.
- 김현영(2018). 상용화된 미래 만들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김현영(2021). 시민교육을 위한 사회·문화 리더십. 경기: ㈜박이정.
- 김현영(2023). 다문화학생의 자치활동에 나타난 민주시민성 실천에 관한 질적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천: 인하대학교.
- 김현영(2016). 화상자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1), 179-203.
- 김현영(2015). 화상자치활동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7(2), 89-118.
- 김현영(2015). 시민교육에 대한 시민적공화주의 입장과 대안적 학교 모델의 모색. 교육철학연구, 37(1), 43-65.
- 김현영(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이념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 북멘토.
- 김현영(2019).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관한 교육철학적 고찰: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교육사상연구, 33(4), 47-84.
- 김현영(2019). 대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다문화시민성 비교 분석. 지역사회연구, 27(1), 145-165.
- 김현영(2023). 2023 인천교육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 김기철, 박진용, 박태준, 이인태, 강대현(2020). 학교 수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학회지, 47(1), 1-15.
- 김형철, 박인혜, 설규주, 오재길(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추진원칙 연구.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 김현영(2010).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문화 감응 교수 방법 개발. 교육과정평가연구, 13(2), 103-122.
- 현영희, 김재우, 김요섭, 이상기, 김희성, 박대훈(2022). 학생자치와 사회참여. 서울: ㈜해냄에듀.
- Banks, J. A.(2007).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2n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Eric Liu & Nick Hanauer(2011). 김문주 역(2017). 민주주의의 청원. 경기: 웅진 지식하우스.
- Oxfam(2015).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 Retrieved from <https://www.oxfam.org.uk/education/resources/education-for-global-citizenship-a-guide-for-schools>
- Peters, Michael A(2008). Citizenship in the Age of Globalization, global-e Twenty-first Century Global Dynamics, Friday, February 15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연구

배기택

인천논곡초 교사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연구

인천논곡초등학교 배기택

* 본 연구는 2023년 2월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보완한 것임

목차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3. 연구 동기 및 연구자의 경험
4. 선행연구 고찰

II. 이론적 논의

1. 세계시민교육 개념 및 담론
2.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3.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III. 연구 방법

1. 질적사례연구
2. 연구대상 학교

3. 연구참여자

4. 자료수집 및 분석

IV.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V. 초등교사의 세계시민교육 경험 사례

VI. 결론

1. 통합(GCE) 관점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개선 방향
2.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세계시민교육 중요성 다시 대두**
- 2015 개정교육과정 범교과학습 주제 10가지 통해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이루어짐: 세계시민교육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교육 주제와 영역, 내용 등에 관한 혼란
-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류 공동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제시**
-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는 2015 세계교육포럼 '교육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에 따라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향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한 세부적인 목표, 전략안, 실행 방안 제시**
-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2022년까지 세계시민교육 정책학교 운영, 올해 2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세계시민교육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필요**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정책 학교의 사례를 분석하고 참여교사의 경험에 나타난 문제인식을 통해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의 개선 방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I. 서론

2.1.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의 등장 및 철학적 배경은 무엇이고 세계시민교육의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는 어떠한가?

셋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 경험 사례는 어떠한가?

I. 서론

2.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 II장 이론적 논의

- 1) 세계시민교육 개념 및 담론: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철학적 배경, 세계시민성, 세계시민교육 등장, 2015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의 내용과 의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개념,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 2022개정교육과정, 인천교육과정,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육과정
- 3)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관점, 초등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의제들, 범교과학습 주제와의 관계 설정

- III장 연구방법

- IV장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 1) 2020-2021학년도 운영 주제, 운영 내용
- 2) 다섯가지 측면 비교 분석: 세계시민성 핵심요소,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육과정, 세계시민교육 실행 방식, 세계시민교육 시 범교과학습 주제 사용

- V장 초등교사의 세계시민교육 경험 사례

- 1) 초등교사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 2) 통합(GCE) 관점에서 살펴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향

- VI장 결론

I. 서론

3. 연구 동기 및 연구자의 경험

* 세계시민교육 경험에서 오는 연구동기 3가지

- 법률적 측면: 세계시민교육과 범교과학습 주제 10개간의 관계 미설정 혼란
- 운영적 측면: 세계시민교육 정책학교 시행 중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인 동아시아시민교육 추가 실시로 인한 혼란
- 지원적 측면: 참여교사들 네트워크 협의체에서 국제교류활동 학교현장에서 운영 어려움, 체계적 지원 필요

* 세계시민교육 연구자의 관점에서 오는 연구동기

- 연구자의 세계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정립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참여교사의 경험 해석 연구 희망

I. 서론

4. 선행 연구 고찰

- 세계시민교육 관련 선행연구
-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 세계시민교육 개념 및 의미 재정의에 따른 선행연구
- 지역수준이나 학교수준에서 이루어진 세계시민교육

시기	검색영역	세계시민	시민교육	세계교육	
-2014	학술논문	368	688	642	
	학위논문	박사	6	46	11
		석사	44	259	204
	연구보고서	73	107	157	
2015-2019	학술논문	354	740	457	
	학위논문	박사	11	30	15
		석사	62	93	73
	연구보고서	30	49	50	
2020-최근	학술논문	194	549	238	
	학위논문	박사	15	37	18
		석사	48	106	62
	연구보고서	0	16	0	
총 편수		1,205	2,720	1,927	

- 기존 연구 중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 경향은 실행연구를 통한 전문적인 실천에 관한 연구로,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관련 연구 경향은 실행연구를 통한 모델 구안, 프로그램 제안 등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음
- 세계시민 관련 연구는 2015년 이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도 시민교육과 세계교육 관련 연구에 비해 연구가 적음
- 지역수준이나 학교수준에서 이루어진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는 찾기 어려움

II. 이론적 논의

1. 세계시민교육 개념 및 담론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에 기반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인류 공동의 문제를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며, 이해·공감·포용을 통해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학생 스스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이는 모든 학생의 삶을 어제보다는 오늘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보다 더 평온하고 평화롭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3> 2015 영국 옥스팜 세계시민성 개발의 핵심요소

※ 출처: Oxfam(2015, p.8)

지식 및 이해 요소	기술 요소	가치 및 태도 요소
사회정의와 평등 정치성과 다양성 세계화와 상호의존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와 갈등 인권 힘과 거버넌스	비판적, 창의적 사고 공감능력 자아인식과 자기 성찰 의사소통 협력과 갈등 해결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능력 정확한 정보와 속고에 기반한 행동	정치성과 자존감 사회 정의와 평등 추구 인간과 인권 존중 가치 다양성 존중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참여와 포용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신념

세계시민교육, 인천선언에 제시- 세부목표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II. 이론적 논의

2.1.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 유네스코 교육과정
- 국가수준(교육부) 2015개정교육과정
- 국가수준(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언급된 '세계시민성, 세계시민교육'>
 • 다문화교육은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가정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탈북 학생 유입 확대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이해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제 사회 전환에 걸쳐 다문화 이해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언급된 '세계'>
 • 추구하는 인간상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 핵심역량: 언어,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초등학교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핵심 교육부, 2015b).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언급된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교육'>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인간성 실현시 고려사항-글로벌 통합: 학생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 발휘 역량, 세계시민 역량 등 강조
 • 교육과정 교과목 구성(안) 교과준: 사회역사/도덕 포함, 선택과목: 일반선택-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진로선택- 국제 관계의 이해, 융합선택-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언급된 '세계'>
 • 고등학교 교육목표: 학생의 평생과 소명에 맞게 진로를 기획하여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교과 재구조화) 기후환경과 공동체 소양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과학, 사회, 환경, 국어, 영어, 예술)와 및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검토. (신설 과목의 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등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글로벌 보편성' 교육부, 2021b)

- 세계시민교육 이라는 용어로서 반영되지 못함
- 2015개정교육과정 범교과학습 10개 주제 중 다문화교육의 일부 내용으로 세계시민교육이 반영됨
- 2022개정교육과정에는 추가적으로 반영된 내용이 없음

<표-6> 유네스코 지침서: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구조

세계시민교육		
학습 영역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주요 학습 성과(세계시민교육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 학습자는 지역 국가 세계의 이슈 및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 학습자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발달시킨다.	• 학습자는 인권에 기반을 둔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한다. • 학습자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공감, 연대의 태도를 익힌다.	• 학습자는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 학습자는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와 의지를 기른다.
주요 학습자 특성(학습자의 자질: 추구하는 인간상)		
지식정보와 비판적 논리력을 갖춘 학습자 지역 국가 세계 차원의 이슈와 거버넌스 체계 및 구조를 인지한 학습자 세계적 이슈와 지역적 이슈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 있음을 이해한다. 비판적 탐구와 분석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한다.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여러 정체성과 인간관계, 소속감을 기르고 유지한다. 인권에 기반을 둔 가치와 책임을 타인과 공유한다. 차이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비평적인 기능, 가치, 신념, 태도를 실천한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한다는 책임감을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보여준다. 공동선을 위한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를 기른다.
학습주제		
1. 지역 국가 세계의 체계와 구조 2.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3. 압축적 가점과 권력의 역할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9. 참여하고자 실천하기
연령/단계별 학습목표		
유치원 및 취학기 (5-9세)	초등 (9-12세)	고등 (12-18세)
* 출처: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지역이해교육원, 2015)		

II. 이론적 논의

2.2.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 인천광역시 교육청 초등학교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육과정

동아시아시민교육이란 동아시아에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며, 동아시아의 공존과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출처: 2021 동아시아시민교육 기본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g)
 동아시아시민교육이란 인권의 학생들이 열린도시(open city) 인천에서 먼저 온 손님이자 주인인 인천사람으로 자라라고 '경차·공존·번영의 가치'를 실천하는 동아시아시민·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학 세계시민교육이다.
 (출처: 2022 동아시아시민교육 기본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a)
 인문학 세계시민교육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동아시아가 당면한 공동의 위기상황과 문제들을 인지하고,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며,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위해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동아시아시민 양성을 위한 인문학 교육정책개발,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

- 동아시아시민교육은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한 세계시민 교육이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시민 교육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순으로 제시하였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를 통해 영역, 일반화된 지식, 주제, 내용요소, 기능 등을 상세히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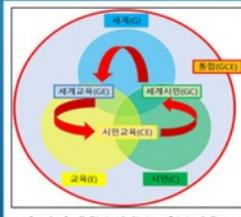
<표-9> 세계시민교육과 동아시아시민교육 특징과 내용 요소

구분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
중점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함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의 능력을 강조함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성과 중요성 확대 및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시간 증가
배경	세계화의 전개와 함께 활(活)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간 증가	동아시아에서의 정체성과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동아시아의 공존과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의미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토대로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초국가적 관점에서 지구촌의 당면 문제를 성찰하고 그에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동아시아를 소재로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관련 사안에 초점을 둠
특징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응하고 그것의 해결을 전인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기본적으로 지구적인 쟁점에 초점을 둠 특정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탈지역적적이고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동아시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동아시아 및 지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내용 요소	지방 국가 세계 체계와 구조 지방 국가 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이슈 현상이면에 있는 권력과 권력의 역할관계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사람들이 소속된 공동체와 이들의 연결 양상 차이 및 다양성 존중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 실천 할 수 있는 행동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행동에 참여, 실천하기	동아시아의 상호연계 동아시아의 역사와 변화 동아시아의 환경과 문화 동아시아의 갈등과 협력 동아시아의 사회문제와 대응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참여
* 출처: 2021 동아시아시민교육 기본계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b, 2022a)		

II. 이론적 논의

3.1.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바라보는 관점

- Davies(2006)가 제시한 네가지 관점 유형 중 '세계시민성+교육'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성 함양을 교육의 틀로 바라봄
- 여기서 말하는 세계시민성은 Johnson(2013)의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세계시민성 담론 중 도덕적 측면에서의 세계시민성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에 기반하여 '어떤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자 하는가'는 물음에 '세계시민(GC) 관점', '세계교육(GE) 관점', '시민교육(CE) 관점', '세계시민교육 관점=통합(GCE) 관점'으로 제시함
- 세계시민교육은 세계(G), 시민(C), 교육(E)이 융합된 성격을 지니며 독립적인 변인으로 각각의 단어에 의미를 부여할 경우 세계시민교육의 교육목표, 내용, 성격들이 조금씩 차이를 갖게 되고, 두 단어씩 연관지어 세계시민(GC), 세계교육(GE), 시민교육(CE), 통합(GCE)으로 [그림-2]처럼 제시함



세계시민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학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avid(2006)가 교육과정 실행 맥락에 따라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네 가지 관점 유형인 '세계시민성+교육', '시민교육+세계', '세계교육+시민성', '교육+시민성+세계'에 관해 살펴본다.

첫째, '세계시민성+교육' 관점은 세계시민성 함양을 교육이라는 틀을 통해 구현함을 의미한다. 즉 '누가 세계시민인가'라는 물음에서 어떤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세계시민교육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세계시민성을 영취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교육이라는 틀에서 구현되는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은 역시 달라지게 된다. 둘째, '시민성 교육+세계' 관점은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세계와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을 구현함을 의미한다. 시민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세계적, 국제적 인간성을 찾고,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것이다. 셋째, '세계교육+시민성' 관점은 세계교육을 중심에 두고, 시민성을 함양함을 의미한다. 국제관계 및 글로벌 세계, 세계사회의 정의, 권리, 책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전제로, 시민성의 포용을 결합하는 것이다. 넷째, '교육+시민성+세계' 관점은 교육+시민성 측면을 소거하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교육, 시민성, 세계로 구분하여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시민성을 소거하면서 국제시민교육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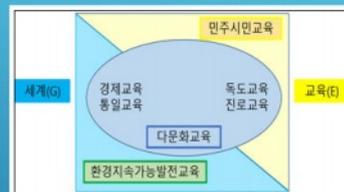
김진희(2013, 2015)는 Johnson(2013)의 세계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세계시민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내용 구성을 제시했는데, 세계시민성을 다루는 접근을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비판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첫째,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은 세계 정부(world state)라는 개념을 상징하고, 현재 단일 국가의 안보, 실정, 입법, 행정의 제약을 갖춘 주권을 지구적 차원에서 변형해서 재구축하는 논리이다. 둘째, 도덕적 관점에서 접근은 현재 세계시민성 담론의 주조적 개념을 아로잡고 있다. 학계나 정책 측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이자 영향력을 준 접근법으로서 도덕적 가치와 규범은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이상이자 전 지구적 윤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위급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개인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접근법으로, 도덕적, 정치적 세계시민성을 축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소비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통해서 세계공동체를 만든다. 넷째, 비판적·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접근은 자유주의적 세계시민론자들이 말하는 개인의 자율성은 유토피아의 생각이며, 이는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없는 특성과 차별, 소외의 구조에 눈을 뜨는 접근이며 사회 구조적 체제 안에서, 지역 맥락에서 재구성해야 함을 역설하는 접근이다(김진희, 2019: 윤노아, 2019: 도시민, 2020).

통합(GCE) 관점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한 '창조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 스스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세계시민, 세계교육, 시민교육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 고려하는 관점이며, 이때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슬로건 중 변형 영역에 중점을 둘을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국가주의, 이념주의, 지역주의, 인간중심주의를 뛰어넘는 관점으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모든 인류는 통합을 통해 공존·공생·공영하여 함께 번영하는 지구공동체임을 뜻한다.

II. 이론적 논의

3.2.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과 범교과학습 10가지 주제 관계 설정

-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범교과학습 10가지: 주제는 안전·건강 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A영역: 세계시민교육이 범교과학습 주제의 하나로서 자리하거나 독립 교과로서 세계시민교과로 신설되어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다학문적 성격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
- B영역: 세계시민교육이 다른 교육과 연계 및 통합되어 간학문적·초학문적 성격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교교육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범교육과정 차원이나 범교육과정적 주제를 의미



III. 연구방법

4. 자료 수집 및 분석

- 연구대상학교: 2020-2021 정책학교 운영사례집을 통한 자료 수집
- 연구참여자: 2020-2021 정책학교 참여교사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통한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표-20> 연구참여자의 면담 일정

번호	면담일시 및 시간	면담 장소	면담 장소
A	2021. 7월 29일 14:30-15:30	대전 1교 전학회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5:45-16:45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6:45-17:45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7:45-18:45		1교 2층 교실
B	2021. 7월 29일 14:30-15:30	대전 1교 전학회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5:45-16:45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6:45-17:45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7:45-18:45		1교 2층 교실
C	2021. 7월 29일 14:30-15:30	대전 1교 전학회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5:45-16:45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6:45-17:45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7:45-18:45		1교 2층 교실
D	2021. 7월 29일 14:30-15:30	대전 1교 전학회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5:45-16:45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6:45-17:45		1교 2층 교실
	2021. 7월 29일 17:45-18:45		1교 2층 교실

<표-21> 반구조화 면담 질문 범위

면담 질문	조사 내용
1. 국제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가?	-국제교육의 정책과 세계시민교육의 운영 정책 -국제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의 현황을 알고 있는지
2. 국제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지원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가?	-국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국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국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3. 국제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지원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가?	-국제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의 현황을 알고 있는지 -국제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의 현황을 알고 있는지 -국제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의 현황을 알고 있는지
4. 국제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가?	-국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의 현황을 알고 있는지 -국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의 현황을 알고 있는지 -국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의 현황을 알고 있는지

- 연구대상학교: 다섯가지 측면에서 분석틀로 비교분석
- 연구참여자: 심층면담 결과를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한 분석

<표-22> 세계시민성 핵심요소 반영 분석틀

구분	지식 및 이해 요소	가치 및 태도 요소	역량 요소	가치 및 태도 요소
A-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표-23> 유네스코 지향성 활용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분석틀

구분	인간적 영역	사회경제적 영역	행동적 영역	
A-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표-24> 동아시아인교육 교육과정 분석틀

구분	영역별	역사적 문화	행동적 문화	가치 및 태도	역량	가치 및 태도	역량	
A-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표-25> 세계시민교육 실행방식 분석틀

구분	교육과정 반영	방법과 사례	가치 및 태도	역량	가치 및 태도	역량
A-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표-26> 세계시민교육 시 범교과학습 주제 사용 분석틀

구분	인간적	사회경제적	행동적	가치 및 태도	역량	가치 및 태도	역량	
A-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IV.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1.1. 세계시민성 핵심요소 반영 분석

- 지식 및 이해 요소: 정체성과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와 갈등, 인권 등과 관련된 세계시민성 요소가 많음
- 기술 요소: 다른 지식 및 이해 요소, 가치 및 태도 요소에 비해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교육내용 중 세계시민성 요소로서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어 있음
- 가치 및 태도 요소: 정체성과 자존감, 사회 정의와 평등 수호 이외의 전 요소에서 대부분의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됨

<표-27> 세계시민교육 선도학교 및 세계시민학교 학교 운영 주력

학교명	주요 운영 주력
인천 1교	Global(Global/Local) 4차원 학습을 위한 Life Lab 운영
인천 2교	Move into the World, Walk into the World, Go into the World
인천 3교	Respectful Community with Value & Nature 활동
인천 4교	4차원 공감활동(Empathy)
인천 5교	Global Top Learning Community: Neo 4차원 학습
인천 6교	글로벌 문화 체험 학습 교육
인천 7교	Changemakers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인천 8교	○○(○○) 교육용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인천 9교	글로벌문화체험교육
인천 10교	○○(○○○○) 4차원 교육과정 운영
인천 11교	학교교육과정 외에 세계시민교육 운영
인천 12교	관공공교육으로 연계된 Global 학습
인천 13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14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15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16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17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18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19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20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21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22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23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24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25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26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27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28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29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인천 30교	○○(○○○○) 4차원 학습 프로그램 운영

<표-28> 세계시민성 핵심요소 반영 분석 결과표(지식 및 이해 요소)

구분	지식 및 이해	가치 및 태도	역량	
A-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표-29> 세계시민성 핵심요소 반영 분석 결과표(가치 및 태도 요소)

구분	지식 및 이해	가치 및 태도	역량	
A-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표-30> 세계시민성 핵심요소 반영 분석 결과표(가치 및 태도 요소)

구분	지식 및 이해	가치 및 태도	역량	
A-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IV.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1.2. 유네스코 지침서 활용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분석

- 행동적 영역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내용으로 담고 있음, 인지적 영역 관련 활동 많음, 사회정서적 영역 적음
- 초등학교의 실태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점: 세계시민교육의 세계시민성 요소,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내용요소 및 핵심요소 적용 결과를 볼 때, 초등학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내용영역이 지나치게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에 치우쳐져 있어 사회 정서적영역을 강화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함

<표-31>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학습목표 및 핵심주제 기준표

구분	1. 국제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 이해	2. 국제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 이해	3. 국제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 이해
1. 국제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2. 국제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표-32> 유네스코 지침서 활용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분석 결과표

구분	인식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세계시민성 이해	세계시민성 실천	세계시민성 이해	세계시민성 실천	세계시민성 이해	세계시민성 실천
(A-1)	●	●	●	●	●	●
(A-2)	●	●	●	●	●	●
(A-3)	●	●	●	●	●	●
(A-4)	●	●	●	●	●	●
(A-5)	●	●	●	●	●	●
(A-6)	●	●	●	●	●	●
(B-1)	●	●	●	●	●	●
(B-2)	●	●	●	●	●	●
(B-3)	●	●	●	●	●	●
(B-4)	●	●	●	●	●	●
(B-5)	●	●	●	●	●	●
(C-1)	●	●	●	●	●	●
(C-2)	●	●	●	●	●	●
(C-3)	●	●	●	●	●	●
(C-4)	●	●	●	●	●	●
(C-5)	●	●	●	●	●	●
(D-1)	●	●	●	●	●	●
(D-2)	●	●	●	●	●	●
(D-3)	●	●	●	●	●	●
(D-4)	●	●	●	●	●	●
(D-5)	●	●	●	●	●	●
(D-6)	●	●	●	●	●	●
(D-7)	●	●	●	●	●	●
(D-8)	●	●	●	●	●	●

IV.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1.3.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육과정 분석

- 2020학년도의 경우는 동아시아, 아시아, 동북아시아와 관련하여 다섯 학교가 교육 주제로 삼아,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를 동아시아동아리로 조직하여 운영, 평화공존 동아시아시민교육 실시, 아시아 문화권의 민족의상과 태국문화탐방, 동북아시아간 직면한 문제를 협력을 통해 해결,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나눔 실천을 통한 빈민국가 환경 개선 기여 주제 다룸
- 2021학년도에는 23개 전 학교에서 동아시아시민교육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함
- 그러나 동아시아시민교육을 대부분 상호관계 및 역사, 환경 및 문화 교류 측면에 치중되어 실시됨

<표-33> 동아시아시민교육 교육과정 분석 결과표

구분	영호관계	역사교류	문화교류	환경교류	인식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세계시민성 이해	세계시민성 실천	세계시민성 이해	세계시민성 실천	세계시민성 이해	세계시민성 실천
(A-1)	●	●	●	●	●	●	●	●	●	●
(A-2)	●	●	●	●	●	●	●	●	●	●
(A-3)	●	●	●	●	●	●	●	●	●	●
(A-4)	●	●	●	●	●	●	●	●	●	●
(A-5)	●	●	●	●	●	●	●	●	●	●
(A-6)	●	●	●	●	●	●	●	●	●	●
(B-1)	●	●	●	●	●	●	●	●	●	●
(B-2)	●	●	●	●	●	●	●	●	●	●
(B-3)	●	●	●	●	●	●	●	●	●	●
(B-4)	●	●	●	●	●	●	●	●	●	●
(B-5)	●	●	●	●	●	●	●	●	●	●
(C-1)	●	●	●	●	●	●	●	●	●	●
(C-2)	●	●	●	●	●	●	●	●	●	●
(C-3)	●	●	●	●	●	●	●	●	●	●
(C-4)	●	●	●	●	●	●	●	●	●	●
(C-5)	●	●	●	●	●	●	●	●	●	●
(D-1)	●	●	●	●	●	●	●	●	●	●
(D-2)	●	●	●	●	●	●	●	●	●	●
(D-3)	●	●	●	●	●	●	●	●	●	●
(D-4)	●	●	●	●	●	●	●	●	●	●
(D-5)	●	●	●	●	●	●	●	●	●	●
(D-6)	●	●	●	●	●	●	●	●	●	●
(D-7)	●	●	●	●	●	●	●	●	●	●
(D-8)	●	●	●	●	●	●	●	●	●	●

IV.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1.4. 세계시민교육 실행방식 분석

- 2020학년도에 비해 2021학년도에 대부분 학교들이 학교 전반 교육 과정에 편성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함
- 학교교육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시민교육으로 교과교육, 창의적 체험활동교육, 그 외 교육 등이 학교교육과정과 서로 동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학교교육 전체가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으로 체계화되어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매우 의미있는 사실로, 세계시민교육은 전학교적 접근을 통해 학교 교육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 학교를 넘어 일반학교로 확산되어야 함

<표-34> 세계시민교육 실행방식 분석 결과표

구분	학교 전반 교육과정의 편성		범교과 주제로 제시		기존 교과에 통합		독립 교과로 운영	
	교과	기타	교과	기타	교과	기타	교과	기타
(A-1)	●	●	●	●	●	●	●	●
(A-2)		●		●		●		●
(A-3)			●		●		●	
(A-4)	●	●	●	●	●	●		
(A-5)	●	●	●	●	●	●	●	●
(A-6)	●		●		●			
(B-1)		●	●	●	●	●	●	●
(B-2)	●	●	●	●	●	●	●	●
(B-3)		●	●	●	●	●		
(B-4)	●	●	●	●	●	●		●
(B-5)	●	●	●	●	●	●		
(C-1)	●	●	●	●	●	●		●
(C-2)	●	●	●	●	●	●		
(C-3)	●	●	●	●	●	●		●
(C-4)	●	●	●	●	●	●	●	●
(C-5)	●	●	●	●	●	●		
(D-1)	●	●	●	●	●	●		●
(D-2)		●	●	●	●	●		
(D-3)	●	●	●	●	●	●	●	●
(D-4)		●	●	●	●	●		
(D-5)		●	●	●	●	●		
(D-6)		●	●	●	●	●		
(D-7)	●	●	●	●	●	●	●	●
(D-8)		●	●	●	●	●		●

IV.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운영 사례

1.5. 세계시민교육 시 범교과학습 주제 사용 분석

- 범교과학습 10가지 주제 중 가장 많이 운영 사례에서 언급된 순서는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동물보호 및 복지교육),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노동교육 순임
- II장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초등교육과정 범교과학습 주제와의 관계 설정에서 다문화교육중심, 민주시민교육중심, 지속가능발전교육중심으로 범교과학습 주제와 세계시민교육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서도 가장 많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35> 세계시민교육 시 범교과학습 주제 사용 분석 결과표

구분	범교과학습 10가지 주제로 제시										기타	
	인간 존엄성	문화 다양성	인권	민주 시민	인권 노동	다문화	환경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 사회 발전	글로벌 시민		평화
(A-1)	●	●	●	●	●	●	●	●	●	●	●	●
(A-2)			●	●		●					●	●
(A-3)	●						●					
(A-4)			●	●	●	●				●	●	
(A-5)	●			●	●	●				●	●	
(A-6)	●			●	●	●				●	●	
(B-1)			●	●	●	●				●	●	
(B-2)	●	●	●	●	●	●				●	●	
(B-3)				●	●	●				●	●	
(B-4)			●	●						●	●	●
(B-5)				●	●	●				●	●	
(C-1)	●			●	●	●				●	●	●
(C-2)				●	●	●				●	●	●
(C-3)	●			●	●	●				●	●	●
(C-4)	●			●	●	●				●	●	●
(C-5)				●	●	●				●	●	
(D-1)				●	●	●				●	●	●
(D-2)	●	●	●	●	●	●				●	●	●
(D-3)	●	●	●	●	●	●				●	●	●
(D-4)	●			●	●	●				●	●	
(D-5)				●	●	●				●	●	●
(D-6)	●			●	●	●				●	●	
(D-7)	●	●	●	●	●	●				●	●	●
(D-8)				●	●	●				●	●	

VI. 결론

1. 통합(GCE) 관점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개선 방향

-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시민교육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초등학생이 스스로 세계시민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합(GCE) 관점에서 설계하고 지도해야 함
- 통합(GCE) 관점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한 '창조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 스스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임
- **세계시민, 세계 교육, 시민교육 어느 한쪽으로도 지우지지 않고 모두 고려하는 관점이며, 이때 세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국가주의, 이념주의, 지역주의, 인간중심주의를 뛰어넘는 관점으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모든 인류는 통합을 통해 공존·공생·공영하여 함께 번영해가는 지구공동체임을 의미함
- 체계성 영역, 지속가능성 영역 제시

〈표-38〉 통합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선 과제

관점	영역	발전과제(발전준)	발전과제(발전준)
통합(GCE) 관점	지역성(지역적)	지역교육과정의 체계화 시기	지역교육과정의 체계화 시기
	지속가능성(지속가능한 교육)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 방향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이어짐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국가수준교육부, 지역수준인재개발연구소, 학교수준(초등학교)에서의 개선 방향

〈표-39〉 통합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선안

(체계성) 학교교육과정의 체계화 시기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주제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체계적 개발
2)	학교장, 학년교육과정 설계자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관심
3)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관련 교과, 관련 내용 연계적으로 반영
4)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적체합일(차별) 주제 체계화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자리하기	
1)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 세계시민성을 향상하도록 해야함
2)	교육과정 운영 시 교사의 자율성 확대
3)	교육과정 편성 시 시수 확보
4)	교육내용 인지적, 사회 정서적, 행동적 영역 통합구성
5)	교육내용 학교급별 수준을 고려한 구체화
6)	범교과학습 주제 재구조화
7)	교육방법의 다양화, 프로젝트학습, 토의토론 학습 확대
8)	범교과학습 주제 통합하여 범교과과정 도입
9)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도입 필요
10)	자료 개발 및 관련 연수 제공, 교사의 전문연수 참여
11)	예산 지원 지속성 필요

VI. 결론

2. 논의 및 제언

-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정책 학교의 사례 및 참여교사의 경험을 통해, 국가수준(교육부 차원, 정책적·제도적·법률적 측면), 지역수준(지역교육청 차원, 지원적·이론적·실천적 측면), 학교수준(초등학교 차원, 운영적·실제적·교수법적 측면)에서 초등학교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향 제시함
- 국가수준의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범교과 학습 주제 통합한 범교육과정 도입, 지역수준의 동아시아인민교육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학교 실태 분석, 학교수준의 세계시민교육 평가 척도 개발 및 교사의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함양 연수 등에 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함
- **끝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왜(Why), 무엇(What), 어떻게(How) 반영할 것인지 국가, 지역, 학교수준에서 관련 기관이 함께 공동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세계시민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이 되기 위한 시작점이자 마침점임**

(방향성)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에서의 개선 방향

국가수준(교육부 차원) (정책적·제도적·법률적)	지역수준(지역교육청 차원) (지원적·이론적·실천적)	학교수준(초등학교 차원) (운영적·실제적·교수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교육으로 세계시민교육 제시, 사회·적응력 함양을 위한 핵심 교육으로 다룸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제시 ·범교과학습 주제 재구조화 ·범교과학습 주제 통합한 범교육과정 도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시 ·교원 양성과정과 교원 연수과정에 필수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반영 ·학교 자율시간 도입 및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정책 제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선 ·예산적·표현적 지원 및 질향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목표 달성 지원 ·소통·협력·의존·표현 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교육부 우호부 블로그 SNS 등 한 세계시민교육활동 공유 ·공모전, 이벤트, 대우전 통해 교육과정의 관심과 참여 유도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위한 법률적·제도적·정책적·법률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인민교육 명칭 수정 ·참여가능한 동아시아인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현적 측면에서 유연한 동아시아인민교육 적용 시행 ·동아시아인민교육 교육과정 보급 ·학년·급별 성취기준에 적합한 동아시아인민교육 교육과정 제시 ·인민교육과정 세계시민교육 편성 시수 반영 ·동아시아인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의 관계 설정, 명확한 이론 제시 ·지역 특성 반영한 수업모델,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세계시민교육 지원단 구성·지원 활동, 다양한 교수학습모형 개발 ·우수수업 사례 공모, 평가 발전, 운영상, 수업자료 배포 공유 ·교원 심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신뢰되고 협력체계 구축 ·온라인·오프라인 인포라 구축 ·모든 초등학교 교원 예산 및 해방 부여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예산 지원 ·다양한 선택과목 개발 제시 ·초등학교 단계·교류활동 지원 ·지역사회 인력·물적 지원 지원 ·동아시아인민교육 도입부터 현재까지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시민교육을 학교전반에 걸쳐 적용하는 것 학교적 접근 필요 ·학교 자체 세계시민교육 내용체계 구성 및 선택과목 구성 ·상·하위학년 연계활동(지속활동) 학년별 주제별 체계적 반영 ·학교의 특성과 학년단 연계성을 가진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 학교교육과정 마련 ·교사의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요구됨 ·서너치 단원 체험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 교육활동 개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학습 및 토의토론학습 실시 ·과정과 성장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방법, 내용 개선 ·교육내용 사회·정서적 영역을 강화하여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도 ·학교차위 세계시민교육 배움을 위한 학습하는 조직으로의 전환 ·연수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전문성 함양,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학생 자발적참여, 스스로 다양한 방식의 활동 공유 및 평가 지원 ·학교 교육과정, 주제 평가 도구 마련을 통한 실태 확인 및 개선 ·학교내 세계시민교육 문화 조성 ·학교장 열린 마인드, 구성원 참여

참고문헌

- 강순원(2021). 유네스코 평화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평화교육과 차기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a), 차기교육과정과 평화·세계시민교육, 48-49.
- 경기도교육연구원(조윤정 외, 2018). 미래사회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재개념화 연구(기본연구 2018-04). 경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 교육부(2015b). 초등학교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9). 범교과학습 주제와 교과교육과정 연결 맵: 범교과학습 주제 교수학습자료.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1a). 2022 개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연구 공청회 자료집.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1b).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보도자료, 2021.11.24.).
- 김영순, 정소민, 윤현희(2016).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방식에 관한 탐색적 논의. 중등교육연구, 64(3), 521-546.
- 김영순(2018). 공유된 미래 만들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박성인(2020). 동아시아 시민성의 세계시민교육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성명경(2017).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의 방향성 연구-B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에다 샌트 외(2021). 세계시민교육-주요 개념과 논쟁에 대한 비판적 접근. 서울: 다봄교육.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2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개정판 2nd ed.). 서울: 박영스토리.
- 유네스코(1996).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 Learning: Treasure Within.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Global -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한국판 해제본. 서울: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참고문헌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박순용 외, 2020). 한국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 서울: 도서출판 살림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6).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윤노아(2019). 사회 교과(군) 교사의 능동적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적 이해: 인식 및 실천의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인천광역시교육청(2021a).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57호(2021.2.24.)).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2021b). 동아시아시민 초등학교 교육과정.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2021c). 2021 동아시아시민교육 기본계획.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연구소(2019). 동아시아시민 양성을 위한 인천형 교육정책 개발(인천교육-2019-0101).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연구소.
- 정기섭(2019).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이해와 실제. 서울: 강현출판사.
- 정우탁(2021). 세계시민교육과 SDGs. 서울: 주류성출판사.
- 한국교육개발원(이성희 외, 2015).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제(연구보고 RR 20 15-2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범교과학습의 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RRC 2009-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 차기 교육과정과 평화·세계시민교육(연구자료 ORM 202 1-8).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Davies, L. (2006). Global citizenship: Abstraction or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al Review, 58(1), 5-25.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3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상호문화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세션 4

포스터 발표

인하대 · 강원대 석박사과정생

인하대 | 장현정

문희진/손효한

서현주

박옥현

남정연

최수안

김혜미

권미영

김은희

유희수

강원대 | 고한빈

조성미

이미정

김수아

인천 지역 다문화 정책학교 수요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분석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장현정

초록

이 연구는 ‘문화 감응 교수(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자본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중등학교급 다문화 학생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자아효능감·자아존중감·상호문화 감수성을 향상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자본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문헌 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큰 열개를 짜고, 이에 실행할 수요자에 해당하는 다문화 학생, 비다문화 학생,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다문화 교육 전공 교수, 국어 교육 전공 교수, 한국어 교육 전공 교수 및 각 전공의 석·박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감수를 거쳐 대학의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협동하여 다문화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다문화 정책학교, 요구분석,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역할극 중심 다문화 교양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변화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문희진 · 석사과정 손효한

초록

본 연구는 역할극을 기반한 다문화 교육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A 대학교 다문화 교양 교과목인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는 다문화 교양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 7명으로,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업소감문과 심층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고등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다문화 교양 수업, 역할극, 다문화 인식

이주배경 청소년의 인문융합치료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4차 서현주

초록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인문융합치료 과정에서 어떤 치료적 경험을 하고, 그 변화 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내러티브 사례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B 시에 소재한 B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13세 여학생으로 중국 한족과 조선족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 자녀이다. 연구 참여자는 엄마의 암 발병과 치료로 한국에 입국한 엄마와 떨어져 중국에서 부모와 거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을 겪었고 이후 2020년에 한국으로 이주하여 현재 엄마와 살고 있다. 연구 참여자는 우울감과 불안을 호소하며 또래 및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만남을 회피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다.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며 평소에 거의 말이 없고 자해도 시도하였다. 프로그램은 2022년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1회 회기 당 60분, 총 10회의 반 구조화된 인문융합치료를 실시하였다.

치료 목표는 초기 단계에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 자기 탐색 및 인식, 중기에 내면 정서의 표출과 언어화, 후기에 내적 자원을 인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등으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인문융합치료에서 미술의 상징과 내러티브를 통해 내면을 탐색하고 자기 서사를 구성하여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과정의 경험과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중문화스트레스와 언어장벽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자기 주도적이고 치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이주배경 청소년, 인문융합치료, 내러티브 사례연구

한국어 문해력 지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방안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박옥현

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문해력 지도를 통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세계시민 교육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도입국 청소년 2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는 2022년 9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22회기(회기당, 50분)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단어 인지,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자모 지식 등에서 높은 향상이 있었다. 둘째, 모국-한국의 문화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서로의 나라에서 보편성, 특수성, 배울 점 등을 찾아내었다. 셋째, 연구참여자 B는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한국어능력 시험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 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제언을 적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시작은 내 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되므로, 가까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세계시민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웃과 함께하는 내 일상의 변화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세계시민 교육, 문해력 지도, 보편성, 특수성

문화재 안내문과 공공언어: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문화재 안내문 분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5차 남정연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언어를 정확성과 소통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공공언어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표현을 정확성과 소통성을 갖춘 표현이나 방안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정확성과 소통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공공언어인 문화재 안내문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장안구의 문화재 안내문에서는 공공언어의 요건 중 정확성보다 소통성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정확성에서는 표기의 정확성보다 표현의 정확성에서 잦은 오류가 발견되었고, 소통성에서는 공공성은 문제 되지 않았으며 정보성 또한 오류가 적었다. 그러나 용이성은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주제어 문화재 안내문, 공공언어, 정확성, 소통성, 수원특례시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관한 치유적 의미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6차 최수안

초록

이민은 그 자체로 사회문화적 적응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심리,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적응을 요구하는 스트레스 유발 생애사건으로, 이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결혼이주는 가족 내에서조차도 상당한 문화적, 정서적 적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이민보다 정신건강 차원에서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자조모임은 집단치료와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동체로서,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함께 해나가면서 임파워먼트를 획득하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자조모임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치유적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생활세계에서 밀접하게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조모임 참여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Giorgi(2004)가 제안하는 현상학적 자료분석을 통해 치유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치유적 의미로 살펴봄으로써, 이주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신건강 지원 측면에서 자조모임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치유, 정신건강, Giorgi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미묘한 차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4차 김혜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특별기여자들의 미묘한 차별 경험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 미묘한 차별은 미묘하게 모욕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차별의 유형으로 특정 집단을 환영하지 않고 고립시키거나 소외시키는 것도 미묘한 차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특별기여자’라고 지칭함으로써 논란의 가능성을 잠재우고자 하였지만, 이들은 사실상 난민이다. 이들은 전 국민적인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입국하였음에도 지속되는 생활세계 내에서 사실상 난민으로서 미묘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이들의 미묘한 차별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하며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 통역가와 함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에 의해 특별기여자로 초청된 이들에게 미묘한 차별이 가해지지 않도록, 본 연구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난민, 미묘한 차별, 질적 사례연구

소집단 “대화” 중심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 함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혼합 연구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2차 권미영

초록

본 연구는 소집단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간호대학생의 상호문화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소집단 “대화” 과정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상호문화의사소통 양상이 어떠한가, 소집단 “대화”는 간호대학생들의 상호문화 의사소통능력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이론적 근거로 Freire의 “대화” 교육론을 적용한다.

이를 위하여 I 대학교의 다문화 관련 교양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47명을 대상으로 ‘상호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Statistics ver.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소집단 내 “대화”의 의미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참여관찰일지 및 학생들의 과제물, 프로젝트 수행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학생 6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의사소통능력’의 구성 요소를 정보수집, 경청, 고정관념적 사고극복, 창의적·개방적 의사소통, 자기 드러내기,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소집단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7가지 각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Freire의 대화 교육론, 프락시스, 간호대학생,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

〈고슴도치 한스〉를 통해 본 아픔, 그리고 치유

강원대학교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과 고한빈

초록

이 연구는 그림 형제의 민담 〈고슴도치 한스〉를 통해 차별과 배제로 인한 고통을 인문예술치료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학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도와 상호문화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다른 외모를 가진 한스의 고통이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인문예술치료 텍스트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한다.

이론적 배경은, 문학작품을 통해 얻는 기쁨이나 즐거움, 깨달음만으로 치유를 경험하며, 작품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더 큰 치유의 효과를 얻고, 내면의 어두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슴도치 한스〉의 줄거리 속 상징들을 해석하여 치유의 요소와 과정을 분석하였다. 반인반수인 한스는 남다른 겉모습으로 인해 거부 받는 소외된 존재이지만 곳곳이 삶의 여정을 지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분석심리학 관점의 대극의 합일을 이루고, 결말에는 자신을 외면했던 아버지를 직접 모시며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스의 가죽피리는 가축을 기르는 모습의 상징이자, 공동체로부터 소외 받는 고통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고슴도치 한스〉를 통해 음악의 치유적 효과를 인식하고, 〈고슴도치 한스〉가 하나의 텍스트로서 소외와 외로움에 대한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성장 경험에 따른 화해와 용서를 담아낸다는 것을 알아보아 인문예술치료 텍스트로의 활용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공감과 카타르시스, 인문예술치료 텍스트, 치유와 성장, 화해와 용서

이상적인 다문화 멘토링에 대한 대학생 멘토의 인식 유형 탐색: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은희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다문화 멘토링의 상에 대해 분석하고, 서로 다른 인식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다문화 멘토링 운영 방안의 시사점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수도권 소재 대학생 중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한 자 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진술문을 확보할 것이다. 이후 수집된 진술문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Q 표본을 분류하고 연구 참여자(P 표본)들에게 배포하여 각각의 진술문을 5점 척도(수집된 진술문에 대한 동의와 반대 정도)로 평가하게 한 후 마지막으로 Q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 카드를 동의 정도에 따라 강제 분포시켜 이를 점수화하여 결과값을 산출하고 PQ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적인 다문화 멘토링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유형을 밝혀냄으로써 다문화 멘토링 실행 유형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멘토 교육과 실행을 위한 실질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다문화 멘토링, 대학생, 멘토, Q 방법론, 다문화 교육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역문화콘텐츠 활용 방법 모색 - 홍천군 ‘며느리 고개’ 설화를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석사 조성미

초록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문제, 외로움, 경제적 문제와 같은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며 그와 수반되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인문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관련 설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강원도 홍천군의 ‘며느리고개’ 설화에는 과거 결혼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여성들이 겪은 삶의 고통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고개’ 설화의 내용 및 상징을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며느리’라는 역할의 의미와 고충들에 대해 성찰할 것이다. 이는 향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인문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며느리고개, 인문케어 프로그램

역할극 활용 교양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상호소통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3차 유희수

초록

본 연구는 학습자간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교에서 역할극을 접목한 교양수업에 참여한 다양한 전공학습자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대본을 만드는 연극활동으로 발전시켜 타문화와의 상호문화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양수업에 참여한 수강생 중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주자료를 수집하였다. 수강생들의 에세이 자료,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역할극 대본, 수업 관찰일지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된 자료들은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상호문화소통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역할극을 접목한 수업이 대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대학교 교양수업에서의 역할극 참여 경험이 미래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상호문화소통 능력이 뛰어난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역할극, 교양수업, 대학생, 상호문화소통, 상호문화소통 능력

발달장애 청소년 부모의 인문치유 자조모임을 통한 자기 성장 사례연구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박사수료 이미정

초록

이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부모들이 자조 모임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인문치유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보다 주체적·독립적으로 변화시키며, 상호 유대감을 바탕으로 자녀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능동적인 부모의 역할 수행 및 자기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춘천시 발달장애 청소년 6명과 부모 6명 등 총 12명이 모임에 참여하여 부모 자조모임과 자녀 모임을 각각 월 1회 실시하였다. 참여의 전 과정에서 면담, 관찰, 기록 등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문치유 자조 모임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고, 부모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부모 자조모임의 운영을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 및 교육, 부모의 적극적 참여, 지역 사회의 관심 및 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발달장애 부모, 인문치유 프로그램, 자조모임

쇤베르크의 음악 언어와 표현의 의미 -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박사과정 김수아

초록

시대의 사유와 문화에 연결되어 발전되어온 음악은 20세기 이후 분열된 세계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 분열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불신에 연결된다. 따라서 음악은 세계의 불안과 고통을 마주하고자 했고, 이 고통과 불안이 내재한 음악에는 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색의 음악적 움직임이 존재한다. 현대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에는 이러한 인간의 고통의 표현과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언어적, 음악적 표현이 담겨 있다.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로 구성된 쇤베르크의 자작 텍스트는 각각의 갈등, 폭력의 구체화, 회복이라는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갈등과 고통,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과 결론은 쇤베르크의 음악 언어인 무조성과 12음 기법으로 상징화된다. 이러한 상징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이 던지는 의미는 고통에 대한 해방감이며, 이 해방감에서 얻게 되는 작곡가 자신의 음악적 진보일 것이다.

주제어 쇤베르크, 고통의 표현, 음악 언어, 12음 기법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2023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상호문화도시와 세계시민교육

연구윤리교육

질적연구의 시작_ 질적연구의 즐거움

질적연구와 IRB: 윤리적 이슈

박수정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부소장

질적연구와IRB : 윤리적 이슈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부소장 박수정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이유

* 질적연구가 '기관생명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

첫째,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로서 연구참여자가 있는 현장에 노출되는 것 자체로 참여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생활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

둘째, 질적연구에서 자료는 양적연구처럼 숫자와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문장이나 사진, 비디오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기 때문

셋째, 질적연구는 과정에 중심을 두는 연구로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속한 공간과 참여자의 경험을 존중해야 함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이유

* 질적연구가 '기관생명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

넷째,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참여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지에 관심이 있음

다섯째, 질적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설정했던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위하여 자료나 증거를 찾지 않음



2 연구윤리와 IRB

1) IRB의 목적과 기본 원칙

- IRB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과학연구의 윤리적·과학적 측면을 심의하여 연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구

• IRB 설치의 주요 목적

- 모든 생명에 대한 과학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
- 이를 위해 연구자로부터 연구계획서, 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심의 및 승인하여 적절한 연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2 연구윤리와 IRB

1) IRB의 목적과 기본 원칙

* IRB의 기본 원칙

첫째, 인간대상연구 혹은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연구는 인간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참여자의 위험은 최소화되고 안녕은 다른 모든 이익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함

둘째, 연구참여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연구참여 동의는 충분한 사전 설명에 의한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함

셋째, 연구대상자 등 연구참여자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혹은 개인 식별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혹은 다른 법령 또는 고시 등 특별한 규정 적용 시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보호되어야 함



2 연구윤리와 IRB

1) IRB의 목적과 기본 원칙

* IRB의 기본 원칙

넷째, 위원회는 정의의 원칙을 고려해야 함

다섯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참여자(개인, 집단)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함

여섯째, 위원회의 활동은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헬싱키 선언 등 국내외 지침 및 규정에 명시된 인간연구대상자와 관련된 보편적 윤리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2 연구윤리와 IRB

1) IRB의 목적과 기본 원칙

* IRB의 기본 원칙

일곱째, 위원회는 총장 직속의 기관으로 위원회 구성, 심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교내 혹은 교외의 제도, 단체, 기관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

여덟째, 위원회의 구성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함



2 연구윤리와 IRB

2) 연구윤리 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종류

<표 4-1> 심의 종류와 내용

심의 종류	심의 내용
정규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족수 등의 형식을 갖춘 심의 ·일반적으로 정기회의 시 정규 심의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이 심의를 담당 ·의결정족수는 패널 재적위원이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이때 교외 위원 및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 평가 위원 각 1인 이상 포함 ·다수결 방식으로 도출하고 승인, 조건부 승인(시정승인), 수정후재심의, 반려, 보류 등 결정
신속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 심의 전 심의를 진행하고, 정규 심의 때 그 결과를 보고 ·연구의 위험 정도가 '최소한의 위험' 이하인 연구의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하며,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의 결정만 가능 ·수정후재심의, 반려 등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심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지속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심의에서 결정된 심의 주기에 따라 연구기간 중 진행되는 심의 ·IRB의 승인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원칙하에 지속, 심의 주기는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연구윤리와 IRB

2) 연구윤리 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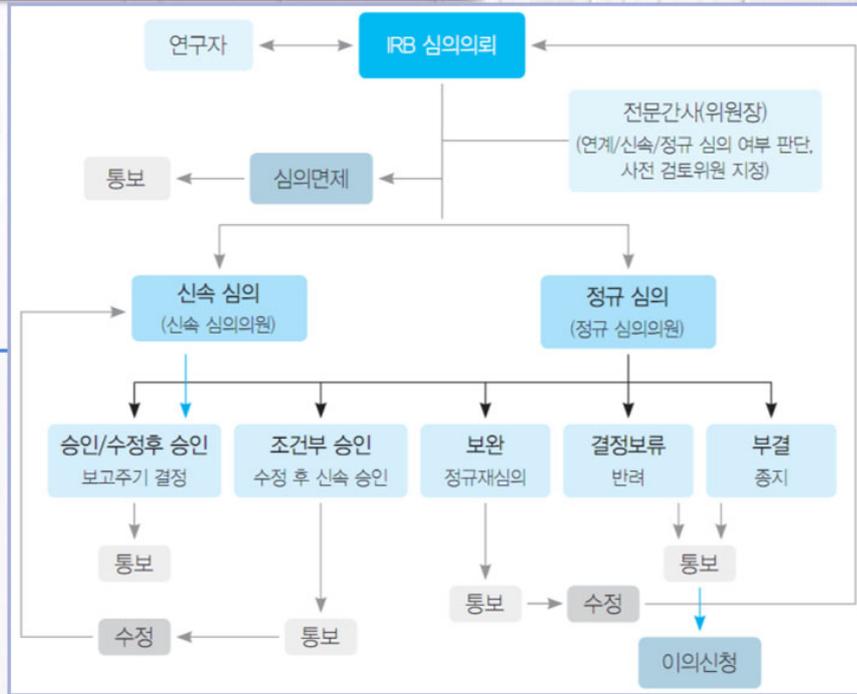
<표 4-1> 심의 종류와 내용

심의 종류	심의 내용
최종결과보고 심의	·IRB 승인된 연구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로 연구 종료 후 6개월 내에 IRB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심의함
계획서, 변동 위반 심의	·초기 심의에서 승인된 연구 내용에 변동, 위반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심의함
조기종료보고 심의	·심의된 연구가 조기종료 또는 일시 중지된 경우에 대한 심의
심의면제 여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 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는 심의 면제 가능 ·단,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심의 면제가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IRB 승인을 요함

2 연구윤리와 IRB

3) 심의 신청 절차 및 승인 후 관리

[그림 4-1]
심의 신청 절차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1) 연구계획서 작성 시 필수 요소 및 연구참여자 윤리에 관한 고려

*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침해 요소를 고려할 사항

첫째, 연구로부터 예상되는 위험과 불편사항을 고려할 때 연구참여자와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험성을 상회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

둘째, 연구의 위험과 이익평가 시,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받게 되는 위험 및 이익과는 별개로 해당 연구로부터의 위험과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셋째,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파급 효과(가령, 공공정책에 미칠 연구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하여 연구참여자가 해당 연구에서 경험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지 않음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1) 연구계획서 작성 시 필수 요소 및 연구참여자 윤리에 관한 고려

*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침해 요소를 고려할 사항

넷째, 취약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시해야 함

다섯째, 연구결과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한 과정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의 이유를 명시해야 함

여섯째,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상해(심리적 부담감, 정서 장애 등)의 경우 보상 또는 치료·치유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함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1) 연구계획서 작성 시 필수 요소 및 연구참여자 윤리에 관한 고려

*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침해 요소를 고려할 사항

일곱째,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위원회는 그 보상액 및 보상 방법과 금전적 보상이 연구참여자의 연구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심의해야 함

여덟째, 연구과정 중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기술하여야 함

아홉째, 연구결과의 출판 및 공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2) 연구참여자 동의 절차 및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연구참여 동의 절차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참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첫째, 동의서 작성은 해당 법률 및 규정 등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주어지는 동의서 서식, 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둘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연구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참여 여부 결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연구 관련 질문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어야 함

셋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연구참여를 강요하거나 참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2) 연구참여자 동의 절차 및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연구참여 동의 절차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참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넷째, 동의서 서식을 포함하여 연구와 관련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사용된 용어는 연구참여자 또는 동의권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으로 작성해야 함

다섯째, 연구참여자의 지속적인 연구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알려지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함

여섯째,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 등 동의권자)와 동의를 받은 연구자는 동의서 서식에 이름을 자필로 성명과 해당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여야 함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2) 연구참여자 동의 절차 및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연구참여 동의 절차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참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일곱째, 연구참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서식, 설명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를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한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하여야 함

여덟째, 아동이나 심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연구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큼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스스로 동의서 서식에 서명하고 자필로 날자를 기입하여야 함

아홉째, 취약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서면 동의 이외에도 참여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2) 연구참여자 동의 절차 및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IRB 승인을 받기 위해 이를 작성하는 방법

첫째, 동의권자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둘째, 연구자 소개 및 연구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지 확인

셋째,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시간/기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연구참여시 주의사항, 연구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

넷째, 연구참여자에게 예상되는 이익 또는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적시했는지 확인

3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2) 연구참여자 동의 절차 및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IRB 승인을 받기 위해 이를 작성하는 방법

다섯째, 연구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기술했는지 확인

여섯째,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의 수집,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 및 폐기하는 시점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일곱째, 연구참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연구참여자의 이상 반응이나 연구철회 등에 대하여 연락하거나 연구에 대하여 의문점 등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함

여덟째, 동의권자와 동의획득자가 각각 자신의 성명, 서명 동의일을 기재할 수 있는 서명란이 있는지 확인

4 IRB 제출 서류

• IRB에 연구계획 심의 의뢰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

➢ 연구계획서(설문지 포함), 연구동의서(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연구심의의뢰서, 연구책임자 이력서, 인간 대상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 사본 등

• 이와 같은 필수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각 대학에 설치된 IRB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필수 항목을 준수하여 제출하면 됨



